




새롭게
걷는 서울,
도시 감성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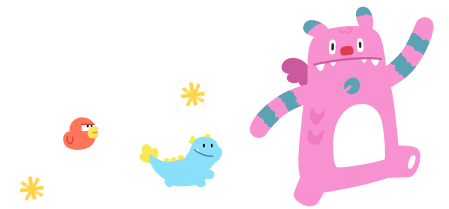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동대문구 카페 슬로우 붐뽕의 내부

새롭게 걷는 서울, 도시 감성 여행



CONTENTS

새롭게 걷는 서울, 도시 감성 여행



01 강남구 선정릉 숲길 08
숲속 힐링과 도심 쇼핑을 한 번에



02 강북구 419카페거리 16
북한산의 멋진 풍광과 근현대사의 만남



03 강서구 서울식물원 습지원길 24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식물 테라피



04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벚꽃길 32
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의 점심 휴식



05 노원구 경춘선 숲길 40
철로를 따라 흐르는 낭만적 감성



06 동대문구 배봉산 둘레길 48
산책하듯 가볍게 올라 조망하는 시티뷰



07 마포구 망원시장길 56
독립서점에서 알아보는 취향의 발견



08 서대문구 천연동 골목길 66
오래된 주택가 사이 역사가 살아있는 길



09 서초구 양재천 카페거리 74
이국적인 정취에 반하는 푸른 공간



10 성북구 성북동 누들거리 82
골목 곳곳 살아있는 예술과 문화의 흔적



11 종로구 창덕궁길 90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사색이 필요할 때



12 중구 중림동 골목길 98
서울의 과거와 트렌디한 핫플의 공존



13 중랑구 중랑천 제방길 108
사계절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서울시 골목길 여행 지도



01. 강남구 선정릉 숲길

숲속 힐링과 도심 쇼핑을 한번에



여행코스 인근역 : 선릉역 도보3분

① 알트탭스페이스 → ② 선정릉 숲길 → ③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을 뜻하는 곳으로, 경국대전과 유교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그의 계비인 정현왕후 윤 씨, 그리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제11대 왕 중종의 왕릉이 자리 잡고 있다. 선정릉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삼성역 등 오피스 지구와 가까운 유적지로, 빌딩 숲 사이에서 직장인들의 휴식처가 되어준다. 나무가 적은 도심에서 허파의 역할을 하며 푸릇푸릇 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강남 직장인들이 점심, 저녁 시간에 찾아와 디저트와 미식을 즐기는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까다로운 입맛의 미식가들에게도 예산을 받는 곳이다.

공원이 적은 빌딩 숲 사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은 1천 원의 입장권으로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니, 아름다운 나무 아래서 산책하며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 있는 입소문 난 맛집을 탐방한 뒤, 이어서 도심을 가로질러 쇼핑까지 한 번에 즐겨보자.

영화 속 소녀들의 방

주인공이 되는 공간, 알트탭스페이스

알트탭스페이스는 예약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포토 스튜디오로 특별하게 꾸며진 각각의 방들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콘셉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붐비지 않는 시간에 방문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을 법한 의상들을 대여하여 1, 2층을 자유롭게 오가며 촬영할 수 있는데, 뉴스의 디토 같은 뮤직비디오 속 등장인물이 되거나, 199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 또는 1980년대를 살아가는 여 작가가 되어 작업에 몰두해 보는 등 테마별로 다양한 공간에서 인생샷을 연출해 볼 수 있다.

특히 케이팝 아이돌이나 한류 연예인의 화보를 좋아했다면 이번 기회에 나만의 콘셉트 화보를 찍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곳에서 평생 남을 특별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여러 장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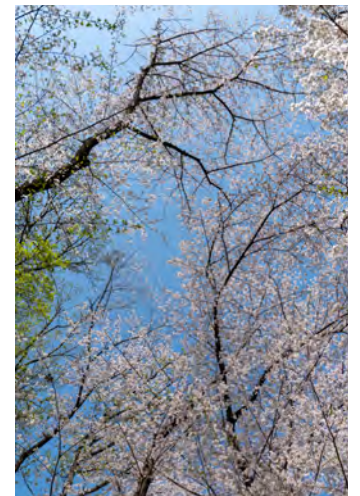


사색에 빠지는 시간

도심 속 숲 산책, 선정릉 숲길

도심 속 공원의 역할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평등한 휴식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별한 비용 없이도 한강에 돛자리를 들고 가 피크닉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선정릉은 적은 입장료로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서 한적한 숲속 소풍을 즐길 수 있다.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적지기에 돛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는 피크닉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잘 관리되고 있어 북적이는 사람들과 소음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선정릉의 숲길에서 조용히 사색을 즐기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로 부대끼는 강남에서 무척 귀한 휴식이다.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시달려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대신 선정릉 숲길을 한 바퀴 거닐어보자. 적당한 거리의 산책으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책 사이 당 충전

숲길의 작은 프랑스, 흐비지떼(Revisité)



흐비지떼(Revisité)는 프랑스어로 '재해석'이라는 의미다. 달콤한 디저트, 구움과자 등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저트를 흐비지떼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겠다는 포부가 느껴진다. 그만큼 자부심이 담긴 맛으로 정평이 나 있어, 시시각각 방문하는 손님들로 작은 가게는 꽉 차 어느덧 쇼케이스 안이 동이 나버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흐비지떼에는 딸기와 크림을 메인으로 하는 케이크, 몽블랑과 휘낭시에, 까눌레, 마들렌 등의 구움과자가 쇼케이스에 각각 전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골목을 바라보며 바 테이블에 앉아 짧은 당 충전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손님이 워낙 많아 포장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되도록이면 이른 시간에 방문하기 바란다. 디저트가 순식간에 조기 마감되어 아쉽게 발길을 돌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추로스 한 다발

스페인 현지의 맛, 글루글루



흐비지떼에서 여행길에 필요한 당을 보충했다면 이번엔 삼성역 골목길로 걸어가 보자. 선릉역과는 사뭇 다른 삼성동의 골목길은 아파트와 빌딩만 있을 것 같은 강남에서 조경이 잘 된 단독주택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 글루글루가 자리 잡고 있는데, 스페인 사람들도 반할 스페인 현지 추로스를 판매하는 곳으로 골목길을 바라보며 바삭하고 달달한 추로스를 먹는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다.



설탕이 부러진 시나몬 추로스에는 깊이 있는 다크 초코와 얼그레이 소스를 추천한다. 얼그레이 소스는 향긋한 허브향에 크림이 더해진 맛으로 입맛을 당기며, 달지 않은 다크 초코는 시나몬 추로스의 맛을 한껏 더 올려준다. 글루글루의 추로스는 매장 안에서 먹을 때는 스텐 접시에 담아 썰어 먹고, SNS에 인증을 올릴 때는 삼각뿔 포장에 담아 테이크아웃을 해보자. 굵은 추로스가 꽃다발처럼 담기는 고깔 포장에 웃음이 절로 나는 재미있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맛있는 비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플랜튜드



글루글루를 나와 큰 길가로 걸어가면 코엑스
스와 연결되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건물이 보인다. 카지노, 오크우드, 도
심공항타워, 현대백화점까지. 고급 상권이
연이어 있어 입구를 잘못 선택하면 처음 방
문하는 사람은 복잡한 동선으로 매우 혼란
스러울 수 있는데, 스타필드 고메스트리트
로 가는 쉬운 길이 바로 오크우드 옆에 있
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메가박스 후문
을 지나 고메스트리트로 연결되고, 바로 입
구에 비건 레스토랑인 플랜튜드가 여행자
를 맞이한다.

플랜튜드는 다양한 식물성 재료로 훌륭한 맛을 만들어내는 비건 인증 식당으로, 채식주의자라면
꼭 한번 찾아가는 곳이다. 특히 강정이나 파스타 등의 메뉴가 비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먹
기 좋아 논비건 지인과 함께 가기에 좋은 맛집이다. 일반식에 익숙한 사람들도 부족함 없이 채식
을 즐길 수 있으니, 여행길에 한 번쯤 건강한 식사를 맛보고 싶다면 플랜튜드에 방문해 보자.



별을 따라 걷다

모로 가도 별마당,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

선정릉 숲에서 시작한 골목길 여행은 코엑스 중앙 지혜의 숲으로 이어진다. 복잡한 코엑스는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
크인 별마당 도서관으로 모든 코스가 집결되는 루트를 만들어 냈다. “모로 가도 별마당으로만”, “길을 잃어도 일
단 별마당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뱅뱅 돌다 지치는 코엑스 안에서도 환상적인 길잡이 역
할을 해주는 별마당도서관은 몇 만권의 장서로 사람들을 유혹하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시인들이 함께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준다.

여행의 마지막을 별마당을 지나 백화점과 스타필드로 눈길
을 사로잡는 다양한 쇼핑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만족스럽게
골목길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02. 강북구 419카페거리

북한산의 멋진 풍광과 근현대사의 만남



길가 가로등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4.19거리



여행코스 인근역 : 4.19민주묘지역 도보4분

① 솔밭근린공원 → ② 윤극영가옥 → ③ 4.19민주묘지 → ④ 419카페거리

저들의 푸르른 숲일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 양희은, <상록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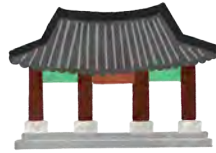
1960년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남고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마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희생된 故 김주열 군의 시신이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4월 19일,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4.19 민주묘지는 바로 이 4.19혁명 당시 치열한 투쟁 속에 스러진 사망자와 부상자, 공로자들을 안장 한 국립묘지다.

100년생 늘 푸른 소나무 1,000여 주가 집단적으로 자생하는 솔밭근린공원에서 시작해 4.19민주묘지 인근에 형성된 카페거리까지 향하는 근현대사 여행.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의 송고한 정신과 청명한 자연을 가슴에 담은 길을 함께 걸어보자.



100년 소나무 숲

천 그루의 기개, 솔밭근린공원



2023년 산림청이 조사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소나무는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1위에 뽑혔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소나무를 사랑했다. 겨울에도 지지 않고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가는 소나무를,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에 빚대어 금지와 기개의 상징으로 여겼다.

덕성여대 맞은편에 자리한 솔밭근린공원은 천 그루의 소나무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 군락지인 솔밭근린공원은,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소나무가 펼치는 피톤치드 커튼 아래서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 시민들을 위한 운동기구와 생태연못,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등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활력 있는 시간을 보내는 솔밭근린공원에서 여행의 시작을 위한 에너지를 얻어보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 배엔
반달 할아버지네,
윤극영가옥



어린 시절 짝꿍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동요 '반달'을 부른 기억이 있다면, 윤극영 가옥 이야기를 듣고 "아!" 하고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윤극영은 바이올린과 성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시절에 만난, 소파 방정환과 창작동화의 선구자 마해송 등과 함께 어린이 교육을 위한 '색동회'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1923년 5월 1일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포한 날이다.



'반달'은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의 시대에, 일본 유학 중 조선인 대학살에서 구사일생한 윤극영이 대탈출에 외롭게 뜬 달을 보고 민족의 서글픈 운명을 떠올려 만든 노래다. 100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민족 동요 반달. 윤극영 가옥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물과 어린이를 위한 동화 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반달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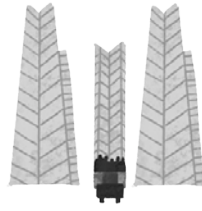
그 날, 민중의 불꽃이 타오르던

사월 학생 혁명의 기상, 4.19민주묘지

'국립 4.19민주묘지'는 목숨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유영봉안소와 묘지, 4.19혁명기념관, 사월학생혁명기념탑, 상징문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연못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군 의장대의 집총 제식을 형상화 한 듯한 '상징문'을 지나면 성역 공간으로 들어선다.

민주묘지 중앙에 위치한 사월학생혁명기념탑은 높이 21m의 화강석 탑 주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과 불의에 항쟁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 세운 젊은 혼들은, 수호신상으로 조각되어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고 있다.

민주묘지의 넓은 공원에서는 북한산을 찾는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벤치에 앉아 순국 선열의 수호 아래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맛 따라 산 따라 달콤한 산책길, 419카페거리



4.19국립묘지부터 근현대사 기념관까지 600m가량의 길은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단독주택들이 길가에 이어지는데, 그 속에 경치 좋고 인기 좋은 다양한 카페와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419카페거리'라고 부른다. 이곳은 북한산 둘레길 2코스, 민주묘지 등과 연결되어 산책길이나 드라이브 중에 들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북한산을 병풍 삼아, 벚꽃이 피는 봄, 초목이 찬란한 여름, 색색의 단풍이 고운 가을, 눈부시게 하얀 겨울까지. 사계절 총천연색의 물감으로 둘러싸이는 4.19카페거리에서 나만의 취향 맛집을 찾아보자.



낙타를 좋아하는 파티셰

늦게 가면 없습니다, 디저트카페 낙타



디저트카페 낙타는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은 케이크로 쇼케이스가 가득한 디저트 전문점이다. 수유동 케이크 맛집으로 소문이 나 디저트 덕후들의 필수 코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특별한 날을 위해 홈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아 조금만 늦게 가면 쇼케이스가 텅 비어 버리는 곳이다.

신선한 딸기와 고소한 생크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한 장 한 장 정갈하게 쌓아 올려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내리는 호두 크레이프 케이크가 메인 메뉴. 낙타를 좋아하는 사장님이 카페 곳곳에 숨겨 둔 낙타 오브제를 보물찾기 하듯 찾으며 입안에 행복을 담아보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료 500원 할인도 되니, 단것을 좋아하는 가족들과 다 함께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테라스에서 브런치를

우리끼리 즐기는 가든파티, Js Park



제이스파크는 고급 주택에 사는 친구의 프라이빗 가든 파티에 초대된 것 같은 브런치 레스토랑이다. 겨울에는 난로를 뿜 듯한 벽돌집 앞 정원에서 파라솔 아래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고, 부담 없이 빵을 썰어 먹는 기분. 큰 나무에 가려져 적당히 프라이빗 한 한가로움이 느껴진다. 주말만 되면 떠들썩해지는 카페거리의 번잡함에서 한발 물러나 나만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추천 메뉴는 치즈 폭포가 흘러내리는 뉴욕 모차렐라 치즈 버거와 신 메뉴 딥후라이 코럴 햄버그스 테이크. 넓은 공원을 걸어 다니느라 지친 몸을 뉴욕식 브런치로 든든하게 채워보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애견 동반이 가능하니 사랑하는 강아지와 함께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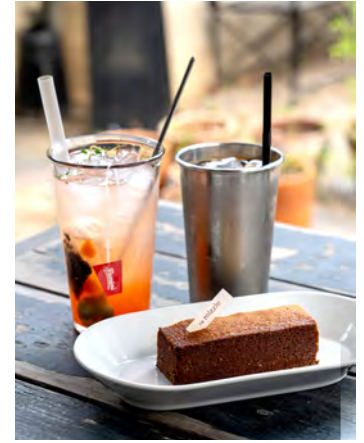


풍경에 말을 잃어도

함께 보는 풍경, 미즐카페엠



영어로 mizzle은 미세하게 떨어지는 안개비를 뜻한다. 가슴을 촉촉이 적셔줄 만큼 내리는 비는 카페에서 창밖을 감상하기 딱 좋은 풍경이 되어준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은 419 카페거리에서 3층까지 이어지는 대형 카페이자, 활짝 열린 풍경을 볼 수 있는 미즐카페엠. 인기가 너무 많아 테라스 자리를 사수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앉아서 북한산 둘레길의 사계절을 추억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화가 많던 사람들도 미즐카페엠의 그림 액자처럼 펼쳐지는 풍경 앞에선 잠시 말을 잃게 될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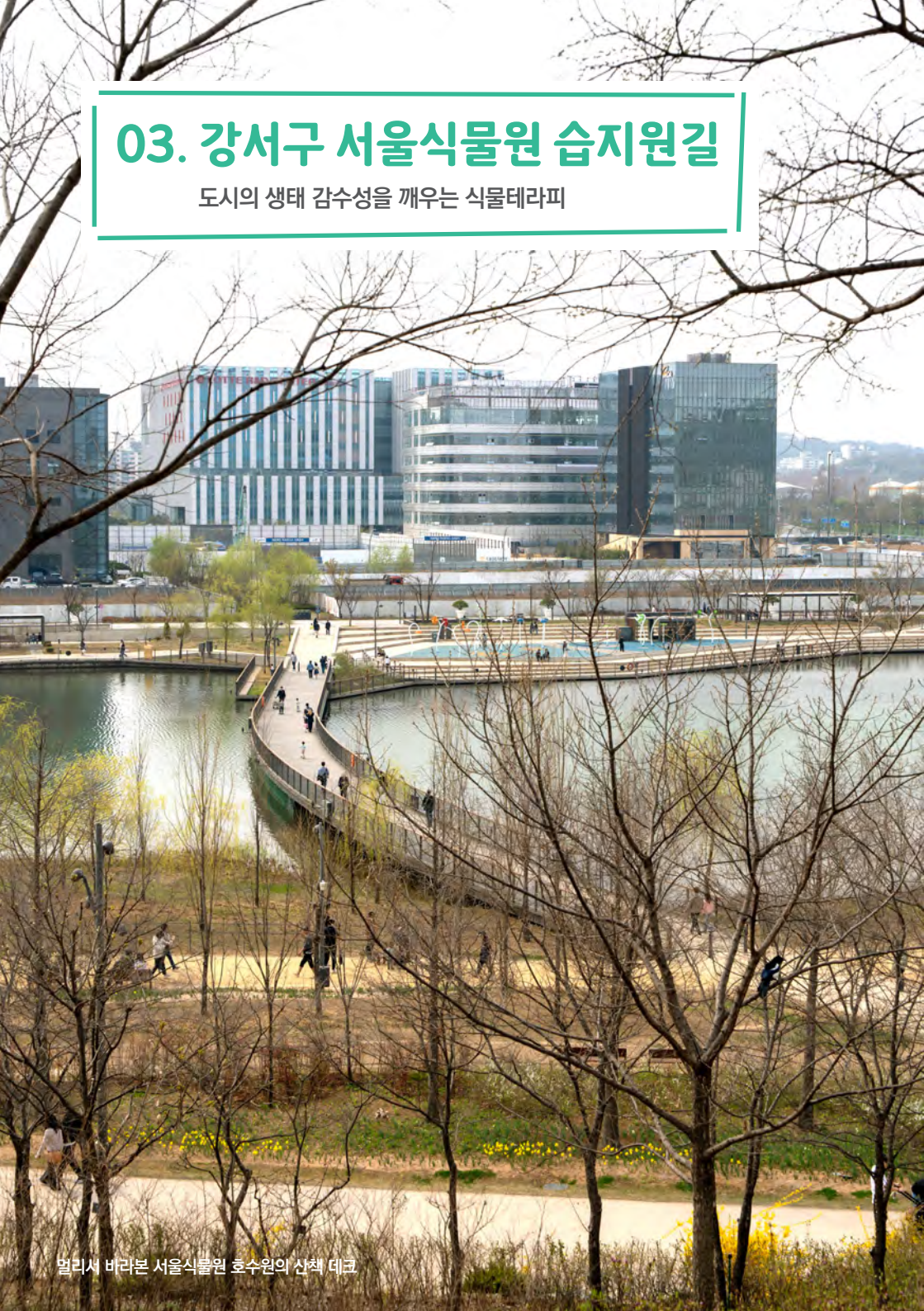


풍경 카페이자, 브런치 카페인 미즐카페엠에는 파스타를 포함한 식사는 물론 베이커리도 많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이 대부분 준비되어 있어 모두의 취향을 트레이에 담아 디저트 뷔페처럼 즐길 수 있다. 서울은 산이 많은 도시다. 어디서나 산이 보이는 서울 안에서든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강북구에서 역사의 기록과 산책길의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419카페거리. 역사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산으로 주말 나들이를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03. 강서구 서울식물원 습지원길

도시의 생태 감수성을 깨우는 식물테라피



멀리서 바라본 서울식물원 호수원의 산책 데크



여행코스 인근역 : 마곡나루역 도보10분

① 서울식물원 주제원 온실 → ② 호수원 → ③ 습지원 → ④ 한강데크

마곡은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로 LG사이언스파크부터 수많은 첨단 기업이 입주해 지식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가까워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유능하고 혁신적인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이곳은 트렌디하고 인기 있는 맛집과 볼거리도 풍부한데, 그중 서울식물원은 마곡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가지 특색 있는 공간이 한강과 연결되어 서남권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식물원. 신기하고 이색적인 식물과 탁 트인 호수 전경을 바라보며 도시 속 식물 감수성을 깨우고, 기업과 자연이 이루는 이상적인 생태계를 통해 서울이 꿈꾸는 미래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해 보자.

대감밥 아니고 봉이밥

푸짐한 한식 전문점, 봉이밥



서울 식물원 산책 전 배를 채울 든든한 곳을 찾는다면 봉이밥을 추천한다. 이곳은 마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전문점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푸짐한 한상을 대접받을 수 있다. 봉이밥은 화려한 자개장이 인테리어 장식으로 쓰여 배포가 크고 인심 좋은 부자집에 초대받은 느낌을 주는데, 품에 안고 먹어야 할 것 같은 커다란 보리밥과 수제비 텔레기가 대표 메뉴다.



'털어 넣고 끓이다'라는 뜻의 텔레기는 수제비를 각종 재료와 함께 넣어 끓이는 경기도식 요리다. 가마솥 느낌의 큰 독배기에 수제비와 갖은 야채가 바글바글 끓어 나오는데, 간을 맞춘 된장 국물이 구수하고 깔끔해 수저를 설 새 없이 놀리게 된다. 사이즈는 입이 떡 벌어지지만 맛은 깔끔하고 정갈하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혼밥이 유행인 시대이지만, 혼밥보다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여럿이 와서 함께 즐기기를 권한다.



모험을 떠나보자!

도심 속 정글 탐험, 서울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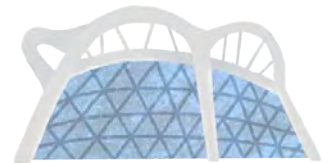
온실(Greenhouse)은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식물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식집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최근 다양한 세대에서 식물을 집 안에서 가꾸는 트렌드가 일상으로 자



리 잡았다. 이는 도시 환경이 밀도 높게 발전함에 따라 부족해져만 가는 자연에 대한 갈증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집안을 온실로 만드는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처럼 마곡의 온실을 담당하는 서울식물원은 축구장의 70배 크기의 공원 부지에 보타닉 파크를 형성하여 마곡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이 되었다.

1,300여 종의 세계 식물을 전시한 서울식물원 온실에서는 하노이부터 시작해 자카르타·상파울루·보고타·바르셀로나·샌프란시스코·로마·타슈켄트·아테네·퍼스·이스탄불·케이프타운 등 지중해와 열대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식물 문화를 발전시킨 세계 12개 도시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크고 이국적인 식물들은 경이로움을 주며, 마치 아마존 정글에 온 기분을 느끼게 한다. 스카이워크에 올라가 아파트 8층 높이까지 자란 거대한 식물들을 내려다보는 것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주재원, 호수원, 습지원까지 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공간이다. 온실이 속한 주재원 외에는 유료 입장권이 필요하지 않아 열린숲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식물원이 처음이라면 꼭 온실에 방문해 보기 바란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5,000원이다.



같은 곳을 보며 걷기

한가로이 호수 산책, 호수원

한옥과 개울, 연못, 꽃밭 등 아름다운 조경을 따라 언덕을 오르면 방대한 크기의 호수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어우러지는 호수원은 탁 트인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가슴에 커다란 심표를 찍어준다. 물에 이끌려 길을 따라 내려가면 30~40분 정도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거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수변가로가 나타나는데, 이곳은 특히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제격이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 보길 추천한다.



살아있는 생태 교육장

새가 있는 풍경, 습지원

서울식물원의 습지원은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빗물을 담아주는 저류지에 속한다. 이곳은 다양한 습지 동식물을 관찰하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되는데, 청둥오리, 민물가마우지, 중대백로, 딱새 등 한가로이 물 위에서 노니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오기에 좋다.

반려동물을 제외하면 동물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도시에서, 야생 동물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이 풍부한 습지에서 자라는 멋스러운 버드나무를 습지 풍경과 함께 눈에 담아보고, 힘차게 한강을 향해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잠시 여유를 느껴봐도 좋겠다.

서울의 심장

진정한 한강뷰, 한강전망데크



습지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육교 위에 오르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전망데크가 나온다. 정식 명칭은 '한강연결보행교'로 테라스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늘 지나가 보기만 했던 올림픽대로, 마곡대교 등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무척 인상적이다.

기차를 좋아한다면 공항철도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도 있으니, 도중에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걸어 데크까지 가보자. 산 정상에 올라 기념 사진을 찍듯이, 서울식물원 온실에서 시작하여 한강에 도달하는 긴 산책길의 마무리를 멋진 한강뷰를 통해 완성해 볼 수 있다.



혹시, 휘최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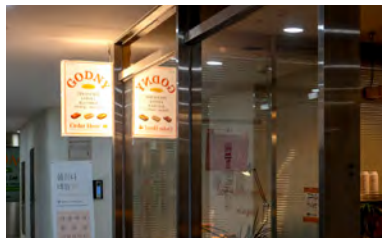
유니크한 비건 휘낭시에 맛집, 고드니



긴 시간 식물을 눈에 담았다면 입에도 식물을 담아볼 차례다. 올 비건&글루텐 프리의 다채로운 휘낭시에를 만드는 고드니는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최몇?)'라는 SNS 밈이 떠오르는 디지털 맛집이다. 자체 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커피와 디저트에 진심인 곳으로, 힙한 분위기에서 최대 11개 이상의 휘낭시에를 골라 먹을 수 있다.



소금 캐러멜, 트러플 옥수수, 진저 추로스 등 창의적인 맛의 조합이 인상적이며, 바삭함과 쫄득함, 달달함과 짭짤함의 환상 케미를 느낄 수 있으니 휘낭시에를 좋아한다면 고드니에서 '휘최몇'에 도전해 보자.



해가 지면 커지는

계절요리와 한국 전통주 이자카야, 심야식당 겸

일본에서 연재된 '심야식당'은 밤 12시부터 문을 여는 작은 식당으로 밤늦게 일을 마친 샐러리맨부터 다양한 손님들을 음식으로 위로하는 내용의 만화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심야식당'은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울면서 들어와 웃으면서 돌아간다는 콘셉트만큼 찾는 이에게 따스함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곡에 자리한 심야식당 겸은 그런 만화책의 콘셉트를 가져온 곳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일과 후 술 한 잔을 기울이러 오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계절 요리와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는 작은 이자카야다. 오픈된 바 테이블에서 주인장의 솜씨를 구경하며 혼자서, 또는 일행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 잘 숙성된 모듬 해산물부터 주꾸미 숙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집까지 즉석에서 내주는 음식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특히 한국 전통주를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데, 600년 고택인 안동의 농암종택에서 만드는 일엽편주가 깊이 있는 단맛으로 안주의 맛을 돋워주니 가벼운 스타트로 선택해 보기 좋다. 화창한 날 전 세계 이색적인 식물들을 보며 한강까지 걸어온 산책길. 심야식당 겸에서 신선한 요리와 전통주로 알차게 보낸 하루 여행을 따스하게 마무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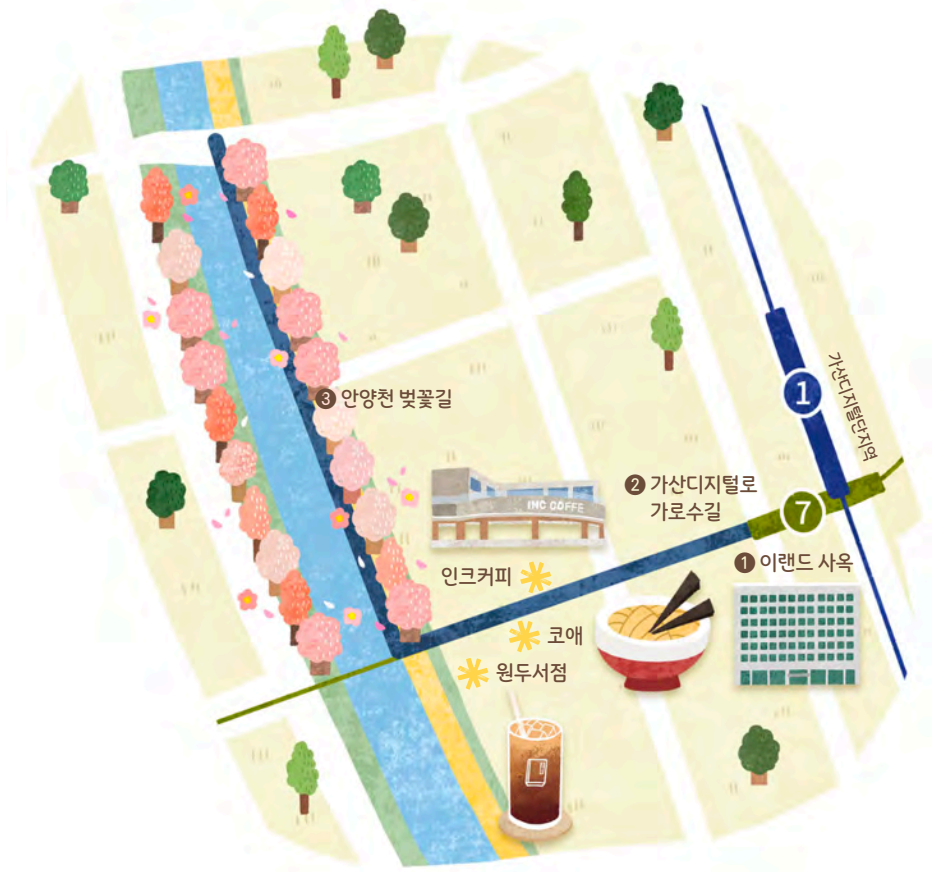


04.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벚꽃길

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의 점심 휴식



벚꽃이 핀 가산디지털로 가로수길을 산책하는 직장인들



여행코스 인근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1분

① 이랜드 사옥 → ② 가산디지털로 가로수길 → ③ 안양천 벚꽃길

1만 개의 기업과 16만 상주인구가 있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G밸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IT 업무 지구다. 이곳에는 직장인들의 삼시 세끼를 책임지는 다양한 식당과 카페들이 많지만, G밸리 직장인들이 특별한 점심 피크닉을 즐기러 가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안양천으로 향하는 가로수길.

갑갑한 사무실 속에서 모니터를 보며 씨름하느라 굼뎠던 어깨를 펴고, 친한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휴식을 즐기는 곳.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맛을 자랑하는 맛집들과 벚꽃 시즌이 되면 기꺼이 벚꽃 비를 맞으러 안양천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는 가산디지털로로 꽃놀이를 떠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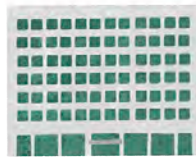


자유를 향해

벚꽃길의 시작, 이랜드 사옥-가산디지털로 가로수길

머리끝에 닿을 듯한 높이의 벚꽃길에서는 마치 벚꽃 우산을 쓰고 꽃 비를 맞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8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이랜드 사옥은 그 벚꽃길 여행의 시작점이 된다. 4차선 도로의 양옆으로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길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자유의 길이기도 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좁은 인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같은 풍경을 공유함으로써 짧은 여행의 동반자가 된다.

가산디지털로의 벚꽃길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거쳐 금천구청역까지 약 10리(4km)에 이른다고 하여 '벚꽃십리길'로 불리며, 경부선 철도와 평행하게 달린다. 예스러운 공장의 빨간 벽돌 건물과 현대적인 빌딩이 어우러진 벚꽃길을 따라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인 '오늘 뭐 먹지?'를 해결해 보자.



맛도 가격도 착한

건강한 베트남 음식점, 코에 KHOE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먹기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빠르게 나와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착한 가격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식당이 아닐까? '건강한'이라는 뜻의 베트남어인 '코에'는 이름처럼 맛도 가격도 착하고 건강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다. 가산디지털로 벚꽃길에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언뜻 평범한 외관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인근 직장인들에게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비범한 식당이다. 이곳은 특히 야정(야외에서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방식)이 매력으로 점심시간 맛있는 베트남 음식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코에의 장점은 두 가지 맛을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에 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1인분 쌀국수와 반미, 해물 볶음밥, 스프링롤을 조합할 수 있는 메뉴가 인기다. 다양한 단품 메뉴 또한 그 자체로 훌륭한 식사가 되어주는데, 빠르게 조리되어 나오는데도 맛 또한 잃지 않는다. 현지 주방장과 서버들,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가 어울려 자아내는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 속에서 점심 한 끼를 든든히 해결하고 싶다면 코에에 방문하여 진하고 깊은 쌀국수의 맛을 경험해 보자.



가산에 자리잡은 대형 카페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함께 즐기는 인크커피



가산디지털로 가로수길에는 인근의 작은 카페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눈길을 끄는데, 이곳은 인크커피의 가산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하층부터 지상 3층을 지나 루프탑까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인크홀'이라는 원형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 각 시즌마다 다양한 콘셉트로 디스플레이 되는 인크커피의 시그니처 공간이다.



가장 안쪽에는 다양한 베이커리와 구움과자, 조각 케이크 등이 진열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는 디저트와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인크커피는 카페 내외부도 멋지지만 직접 로스팅 한 커피와 베이커리의 맛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므로 3층의 카페 테이블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 시작될 안양천 산책길을 미리 조망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인생 카페에 밑줄 짝

지금 바로 북마크, 원두서점



'홍대병'이라는 말이 있다. 나만 알던 가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아쉬움을 느끼는 일종의 문화적 '부심'으로, 원두서점은 그런 '홍대병'을 불러일으키는 로컬 카페다. 안양천으로 진입하는 육교 밑 작은 카페지만 서점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커피에 진심인 바리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숨은 명소로, 언젠가 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 함께 하고 싶은 로스터리 카페다.



카페는 바리스타의 핸드 드립을 볼 수 있는 바 테이블이 메인이다. 카페에 들어서면 어린 왕자, 데미안, 노인과 바다 등 세계 명작들을 모티프로 한 이야기가 담긴 핸드 드립 커피를 선택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많아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데, 바리스타의 친절하고 상냥한 설명이 곁들여져 선택이 어렵지는 않다. 커피를 고르면 테이블에 앉거나 카페를 둘러보며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다. 원두서점은 작고 좁아 사람이 붐비기 시작하면 가게 안은 금세 꽉 차는데, 아무도 서두르거나 재촉하는 사람이 없다. 이곳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특유의 여유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와 곁들일 디저트는 우제 크림 브뤼레를 추천한다.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 위에 얇게 덮은 설탕 층을 토치로 그 올려 바삭한 캐러멜 막을 만드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야기가 담긴 핸드 드립 커피와 디저트가 함께 하는 원두서점에서 인생의 한 페이지를 향기롭게 장식해 보자.

빌딩숲의 오아시스

벚꽃이 만드는 아치, 안양천 벚꽃길

원두서점에서 잘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안양천으로 들어서면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한강처럼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하천과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이 풍성하게 자란 벚꽃길이 장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가산디지털로가 자리한 안양천 하류는 폭이 250m로 하천 중 넓은 편에 속한다. 벚꽃 시즌에는 안양천은 너도 나도 꽃놀이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데, 워낙 넓고 길어서 번잡함이 덜하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유명한 덕분에 때론 한강보다 통행량이 많아 자전거도로계의 경부선으로 불리기도 하며, 길을 따라 걷고 달리는 사람들로 활력이 넘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과에 지쳤다면, 지금 당장 이랜드 사옥에서 시작하는 가산디지털로 벚꽃길 여행을 떠나보자. 벚꽃 시즌에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다른 계절엔 풍성하고 생기 넘치는 자연의 편안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05. 노원구 경춘선 숲길

철로를 따라 흐르는 낭만적 감성



철로 옆으로 이어진 경춘선 숲길을 산책하는 시민들



여행코스 인근역 : 공릉역 도보5분

① 공릉동도깨비시장 → ② 경춘선 숲길 → ③ 화랑대 철도공원 → ④ 옛 화랑대역

노원구 경춘선 숲길은 기차길을 따라 걷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하다. 오래된 것에서 낭만을 느끼는 '레트로 (Retro)' 열풍이 어느 정도는 지나갔지만, 추억은 유행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구간 운행이 중단된 녹슨 철로는 탈 것 대신 사람이 걷는 숲길로 재탄생했고, 폐역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의 모습을 남긴 채로 철도공원이 되었다. 옛 것은 쓰임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 태어날 생명력을 품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 불리는 '공트럴파크'에서 출발하여 옛 화랑대역까지 이어지는 노원구 여행. 철로를 따라 걷는 숲길의 감성이 스며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로맨스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보일 경춘선 숲길을 지금 걸어보자.



숲길 나와라 똑딱!

언덕길 전통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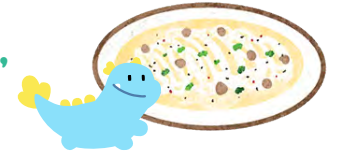
7호선 공릉역에서 400m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상가 건물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독특한 시장이다. 대로변에서 시작해 언덕길로 올라가는 일직선 골목을 따라 아케이드가 설치된 공릉동도깨비시장은 1939년 경춘선이 개통하면서 화랑대역 인근에 모여든 노점상들로부터 자연 발생했다. 노점 단속이 뜨면 도깨비가 다녀간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이름의 유래에서 식민지 시대 민초들의 애환이 느껴진다.

현재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생활 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면서, 경춘선 숲길과 연결되는 관광 코스로 일 평균 4천 명이 방문하는 인기 명소가 되었다. 숲길 근처에 앉아서 먹을 간식거리를 살 겸 도깨비시장을 구경하며 깨끗하게 관리되는 아케이드를 통과하면, 쏟아지는 햇살과 함께 도깨비방망이를 내려친 듯 공트럴파크가 '짹'하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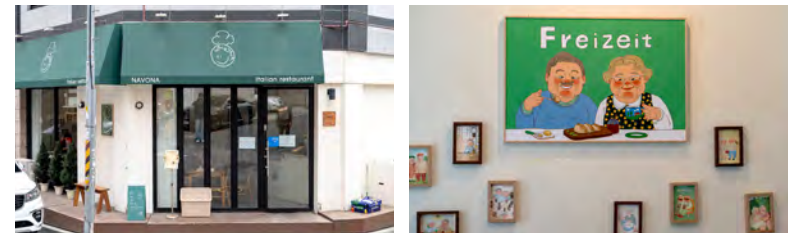


로마의 휴일

공트럴파크 파스타 맛집, 나보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분수 광장인 '나보나 광장(Piazza Navona)'은 아름다운 바로크풍 조각과 오벨리스크로 유명하다. 광장에서 이름을 딴 공릉동 나보나는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지만 아름다운 비주얼과 정통 파스타 맛으로 광장처럼 손님이 몰려드는 곳이다.



나보나의 시그니처 메뉴는 크림 베이스에 매콤하게 볶은 쇠고기 민피로 맛을 낸 만조 피칸테와 토마토 베이스에 생모차렐라 치즈, 바질, 구운 가지를 곁들인 멜란자네로 신선하고 조화로운 맛이 일품이다. 새우를 갈아 만든 이탈리아식 새우 크로켓은 아래에 깔린 마늘 크림소스의 풍미로 식사의 품격을 더해주시니 곁들여 주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방지순례 필수 코스, 바이레인베이크샵



광진구 중곡동에서 시작해 성동구 성수동에서 유명세를 얻은 뒤, 2023년 12월 공트렐파크에서 시즌 3를 시작한 바이레인베이크샵은 맛집 컬렉터 박세리 선수가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베이커리다. 케이크, 페이스트리, 베이글, 구움과자 등 만물 빵집처럼 제철 재료로 만든 다양한 빵을 만날 수 있으며,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눈과 입이 즐거운 곳이다.



바이레인베이크샵의 초당옥수수 페스츰리는 단짠의 극치와 고소한 크림볼로 중곡동 시즌 1부터 이어져 오는 시그니처 메뉴다. 제철 과일이 들어가는 크레이프류는 인기가 높은 메뉴로 딸기, 망고, 후르츠 등 다양한 과일을 활용하고 있으며, 식사빵으로 인기가 높은 베이글은 소금과 명란감자가 인기다. 곁에 두고 매일 다른 빵을 먹어보고 싶은 바이레인베이크샵. 방지순례자라면 반드시 들려보자.



꽃길만 걷자

봄을 맞는 길, 경춘선 숲길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생동감 때문일 것이다. 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왔음을 알 듯이, 경춘선 숲길은 길가에서 만나는 꽃과 나무를 보며 자연의 변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익숙한 꽃은 반가움을, 낯선 꽃은 새로움을 주는 길. 꽃을 보



고 걸음을 멈추면 새로운 장소가 눈에 들어와 천진한 호기심이 일어나는 길. 평소라면 위험해서 안전선 밖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철로를 직접 밟고 걸어볼 수 있다는 흥미로 움과 함께, 다채로운 감각과 감정이 샘솟으며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경춘선 숲길.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이 길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잠깐, 심포

철길 옆 카페, 던모스



철길이 잠깐 멈추는 횡단보도 옆, 디저트 카페 던모스는 목마른 여행자들이 머물다 가기 좋은 카페다. 이곳은 달콤한 케이크와 구움과자가 쇼케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보리 어닝 아래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여유와 2층에서 커피를 마시며 철길을 바라보는 낭만 모두 방문객들을 만족스럽게 한다.

향기로운 맛의 애플 얼그레이 치즈케이크와 초코 스모어 쿠키는 가장 잘나가는 메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디저트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든 자기 취향 맞는 디저트를 선택할 수 있다. 디저트와 커피를 주문하고 2층에 올라가면 자연을 안으로 들여온 시원한 차경(借景)이 돋보인다. 수시로 깜빡이며 색을 바꾸는 횡단보도와 철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커피와 디저트를 즐겨보자.



기차가 있는 풍경, 화랑대철도공원



경춘선 숲길을 따라 6호선 화랑대역을 지나면 옛 화랑대 폐역이 있는 화랑대철도공원이 나온다. '화랑대'는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으로, 신라 시대 화랑도의 기개와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1957년 제정되었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던 화랑대역은 경춘선 전철이 복선화되면서 2010년 영업을 종료했다. 하루 이용객은 적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숲으로 나들이 나온 방문객이 많았던 이곳은 이제 화랑대철도공원이 되어 기차를 배경으로 소풍을 즐기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원래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있던 허기1형 증기 기관차와 협궤 객차 2량,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앞에 있던 대한제국 당시의 서울전차 복원품을 기념물로 옮겨와 한국의 옛 폐역과 기차의 모습을 추억하는 야외 박물관이 된 화랑대철도공원. 기차에서 기차로, 카메라를 옮길 때마다 과거에서 근현대로 시간이 바뀌는 나만의 시간 여행을 경험해 보자.



추억이 깃든 자리

온 가족 놀이터, 옛 화랑대역



옛 화랑대역 앞은 온 가족이 동심에 빠져드는 모두의 놀이터다. 어른들은 어린 시절 추억에 빠지고, 아이들은 기차에 오르내리며 마음껏 뛰어논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철로를 같이 걷는 모습이나, 기우뚱 기우뚱하면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레일을 밟으며 나아가는 모습들은 화랑대역을 온 가족의 놀이터로 만든다.

자리를 잡고 앉으면 피크닉장, 셔터를 누르면 포토 스팟이 되는 화랑대역은 시민들의 추억으로 세계적이 물든다. 공트릴파크에서 시작해 경춘선 숲길을 따라 화랑대역까지 오는 산책 코스는 사색과 여행, 나들이 등 어떤 형태든 종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줄 것이다.



06. 동대문구 배봉산 둘레길

산책하듯 가볍게 올라 조망하는 시티뷰



여행코스 인근역 : 청량리역 버스17분

① 배봉산 열린광장 → ② 배봉산 숲속도서관 → ③ 배봉산 전망대(해맞이광장) → ④ 시립대 산책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산에 오르는 이유를 물으면 '성취감'을 이야기한다. 오르막길을 걸으며 보는 싱그러운 수목과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상쾌함이 좋은 에너지를 주고, 높아 보이기만 했던 정상을 정복했다는 만족감은 분명 등산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다.

동대문구의 배봉산은 해발 110m의 완만한 산으로, 등산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운동 삼아 가볍게 산책을 나온 사람들에게도 제격이다. 무엇보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시티뷰가 압권인데, 정상에서 성냥갑처럼 작게 변한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고민이 별거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도심 속 경쟁이 주는 치열함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면 배봉산에 올라보자. 도심 가까이에서 도심을 벗어날 수 있는 초록의 세상이 당신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편안한 쉼을 선사할 것이다.

속을 달래주는 가벼운 든든함

홈메이드 샌드위치 맛집, 카페 슬로우 봉봉



배봉산에 오르기 전 속을 가볍게 채우거나, 정상에 오른 뒤 밀려오는 공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슬로우 봉봉에 먼저 들러보자. 동화처럼 아기자기한 카페에서 엄마 같은 사장님이 홈메이드 스타일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가벼운 브런치를 만들어 주신다.



당일 구매하여 당일 소진하는 신선한 야채와 속 재료는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슬로우 봉봉의 신념만큼 알차다. 대표 메뉴는 슬봉수제 샌드위치로 햄/치즈/계란/야채/토마토에 수제 소스와 블루베리잼을 혼합해 달달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특징이다. 햄/치즈/크래미/에그마요 등이 들어가는 달콤에그 샌드위치도 인기메뉴. 배봉산 정상에서 맛볼 성취의 맛과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샌드위치의 맛이 산 위에서의 만족감을 두 배로 올려줄 것이다.



Since 1965. 대를 잇는 묵심

중화요리의 新낙원, 신락원



'세계요리대회 금상, 대통령 중식 담당 조리사, 5성급 호텔 주방장'. 호텔식 중식을 선보이는 신락원 왕기명 대표의 화려한 타이틀이다. 신락원은 30년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 조선호텔 호경전, 아워홈 싱카이, 세종호텔 황궁 등의 국내 정상급 호텔 주방장을 역임한 왕기명 대표가,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잇고 있는 약 60년 전통의 노포다. 2020년 국민추천제로 서울시 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동네의 자랑이 되고 있다.

신락원은 유니크한 볶음짬뽕인 신락면이 시그니처 메뉴로, 왕기명 대표의 부친이자 신락원의 2대 셰프인 왕수신 주방장이 개발한 메뉴라고 한다. 울면의 점도와 볶음짬뽕의 칼칼함을 가진 매콤한 볶음면으로 1980년대에 개발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독창적인 음식이다. 그 외 인기 있는 메뉴로는 칠리새우, 크림새우, 탕수육, 깡풍기 등의 튀김류 일품요리들로 신락원만의 노하우가 담긴 발효 반죽을 이용해 접시가 바닥날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는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 나는 소스가 일품이다. 배봉산 인근에서 돌레길 산책 전후의 출출함을 채워 줄 맛있는 요리를 찾는다면, 3대로 이어져 오는 중식 맛의 新낙원을 경험해 보길 추천한다.



곧 폭포 맛집이 될

우리 모두의 광장, 배봉산 열린광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가을에는 페스티벌장으로 배봉산 열린광장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2024년 여름이면 높이 17m, 폭 34m 규모의 인공폭포가 들어서며 물과 빛이 어우러지는 풍경 명소가 될 배봉산 열린광장. 이곳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휴식처로 사시사철 정겨운 이웃들과 함께 운동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마당이다. 배봉산 둘레길의 시작점으로 등산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건강한 활력을 주었던 열린광장이 7월 인공폭포 완공 후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된다.



커피 한 잔부터 공동육아까지

숲속 베이스캠프, 배봉산 숲속 도서관



배봉산은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만큼, 마음먹고 산을 오르기 위해 오는 등산객보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놀이를 하러 오는 가족들이 많다. 숲속 도서관 역시 공부를 하기 위함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등산을 하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산을 보며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데리고 온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등 이웃과 함께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숲속 도서관이다. 열린 광장이 마당이라면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채 역할을 한다.

주변이 15개의 초·중·고등학교와 주거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2018년 무장애 숲길이 형성되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는 배봉산 숲속 도서관.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베이스캠프에서 산책의 재미를 하고 즐거운 등산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



마침내, 정상

해를 맞는 광장, 배봉산 전망대



배봉산은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로 갈 수도 있고, 짐 풀처럼 엮여 계단 없이도 산을 오를 수 있는 아자매트 길로도 갈 수 있다. 아무리 낮은 산이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산은 힘들 수 있는 법. 그럴 땐 길 옆에 자란 꽃과 나무를 카메라에 담으며 천천히 둘레길을 즐겨보자.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이 눈과 다리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준다.



주변의 자연들을 감상하다 보면 마침내 도착하는 배봉산 전망대. 해맞이 광장 이라고 불릴 만큼 넓은 공간에 햇빛이 가득 차 산을 오르는 수고가 아깝지 않다. 잘 자란 소나무 사이에 놓인 벤치에 앉아 서울을 한눈에 조망해 보자. 탁 트인 시티뷰에 두 눈이 시원해지며 부듯한 만족감이 솟아오를 것이다.

새내기 마음으로

자연에 둘러싸인 학교, 시립대 산책길

배봉산 정상에서 활력을 얻었다면, 내려갈 때는 젊음이 넘실거리는 서울시립대를 향해 가보자. 배봉산 둘레길과 연결된 시립대 산책길로 가면 자연의 푸르른 녹지를 보며 캠퍼스를 산책하기에 좋다. 주거 지역과도 가까워 골목골목 숨은 맛집을 찾아 도심 여행을 즐겨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코스다. 대학가는 곳곳에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이 많아 가성비 좋은 로컬 맛집에서 젊음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좋다. 배봉산 둘레길에서 푸르른 자연을 만끽했다면, 이젠 힌한 펍에서 맥주 한 잔과 트렌디한 디너를 즐길 차례다.



우리엔겐 내일이 있다

해피한 루프탑 피자 맛집, 해피디쉬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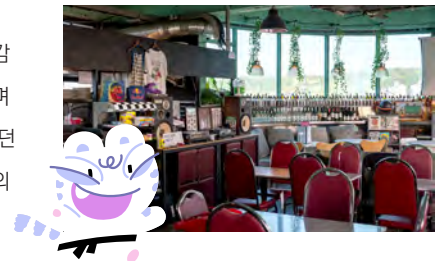


하루의 행복한 마무리로 술 한 잔을 빼놓을 수 없다. 넓고 이국적인 펍 분위기의 해피디쉬클럽은 시원한 생맥주와 직접 빻어 굽는 피자, 그리고 내 맘대로 믹스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BBQ 플래터가 메인 메뉴다. 인기 있는 맥주는 아메리칸 페일 에일로 상큼한 시트러스와 씹살하면서도 달콤한 향의 조화가 훌륭하다. 주문한 맥주를 한 모금을 먼저 마시고 있으면 이어서 가성비 좋은 13인치 피자가 서브되어 여럿이 나눠 먹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해피디쉬클럽의 시그니처, 해피 플래터는 스모크 치킨과 포크밸리 바비큐를 토르티야나 모닝빵에 야채와 샐러드 등을 넣어 접어 먹는 메뉴로, 뷔페처럼 푸짐한 한상을 차려 먹을 수 있다.

배봉산 둘레길 정상에서 조망한 시티뷰의 감동을 루프탑에서 해가 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여정. 등산을 함께 했던 동행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빛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07. 마포구 망원시장길

독립서점에서 알아보는 취향의 발견



다양한 책들이 놓여있는 독립서점 로우박스의 내부



여행코스 인근역 : 망원역 도보2분

① 당인리책발전소 → ② 스캐터북스 → ③ 로우박스 → ④ 제로헌드레드 → ⑤ 망원시장 → ⑥ 가가77페이지

서울에서 가장 개성과 활기가 넘치는 곳을 찾다면 단연코 마포구 망원시장길이다. 이곳은 신구의 조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골목길로 줄 서서 먹는 맛집들과 달콤한 디저트 카페가 눈길을 끌지만, 여행자들이 꼭 가봐야 하는 곳은 의외로 독립서점이다. 마포구는 서울에서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독립서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홍대에서 발전한 인디뮤직의 감수성이 책 문화와 어우러지며 '나만의 것'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심 속 다락방이 되어주고 있다.

독립서점은 '정답'을 강요하는 대중의 반대편에서 상냥한 '호기심'을 던지며 다가온다.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평소에는 하기 힘든 새로운 사유를 편안한 대화와 몰입 속에 얻게 된다.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디지털 콘텐츠에 휩쓸려 어느새 나를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마포구 망원시장길로 골목길 여행을 떠나보자.



‘진작 올 걸 그랬어’

나를 만나는 몰입, 당인리책발전소



한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 인근에서 작은북카페로 시작했던 ‘당인리책발전소’는 독립서점 열풍에 불을 지핀 마포구의 대표 서점이다. 아나운서 부부로 잘 알려진 김소영, 오상진 부부가 2017년 직접 개점하고 운영하며 화제가 되었다. 현재는 상수역에서 망원역 1번 출구 가까운 위치의 벽돌 건물로 이전하여 망원시책길 여행의 시작점으로 삼기에 좋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책을 추천하다 결혼한 김소영, 오상진 부부의 로맨틱한 사연만큼, 당인리책발전소는 ‘큐레이션’을 통해 북함문화공간으로 발전했다. ‘좋아서 알고 싶은 책’과 ‘좋아할 것 같아 소개하는 책’들 중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고르고, 음료를 주문한다. 입소문이 난 메뉴는 흑임자라떼와 열그레이피치. 당인리책발전소의 대표 메뉴답게 독서에 기본 좋은 만족감을 더해준다.



2층으로 올라가면 조용한 몰입의 공간이 펼쳐지는데, 당인리책발전소에서는 각자 온전히 책 속에 폭 빠져드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몰입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준다. 관심이 가는 책 여러 권의 병렬 독서나 책 한 권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 독서 모두, 읽기 전과 조금은 달라진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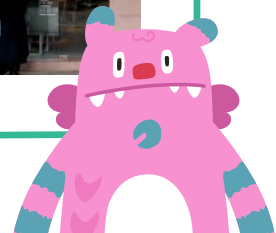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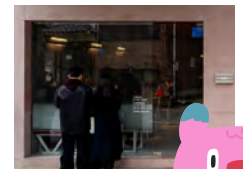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최상의 부드러움

서울 3대 돈카츠 맛집, 헤키



헤키는 주말에는 2시간 이상의 웨이팅이 필수가 된 서울 3대 돈카츠 맛집이다. 헤키가 유명한 이유는 돼지고기 숙성 방법에 있다. 저온에서 훈연 및 건조하는 방식의 콜드 스모크 숙성 카츠로 양질의 돼지고기를 엄지하고 숙성해 튀겨내어 최상의 부드러움을 선사한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단연 히레 카츠(ひれかつ)다. 부드러운 육질에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면서도, 촉촉하고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는 식감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음으로 유명한 메뉴는 닭 가슴살로 만드는 토리 카츠(とりかつ)다. 닭 가슴살은 펄펄하다는 편견을 깔끔히 날려주는 맛으로 헤키만의 토리카츠는 촉촉한 풍미에 매료될 것이다.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입맛을 사로잡는 미니 냉우동을 곁들여 첫 식사를 만족스럽게 즐기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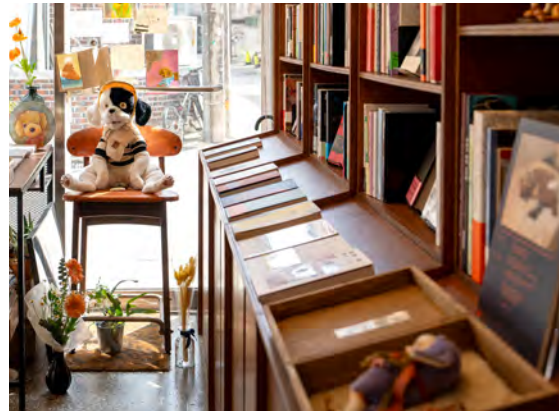


이야기를 소장하는 방법

취향의 존중, 스캐터북스

돈카츠를 맛있게 먹었다면 다시 독립서점을 찾아 걸음을 옮겨 보자. 각각의 테마가 뚜렷한 독립서점들 가운데서도 스캐터북스는 주인이 추천하는 소설책의 책장을 넘겨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흠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Scatter'의 의미답게 서점 주가 책에 대한 감상과 추천사를 정감 있는 손글씨로 포스트잇에 적어 표지에 붙인 뒤 서가 곳곳에 꽂아 두었다. 제목을 보고 책을 꺼내면 보물 찾기처럼 추천 포스트잇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독립서점은 자주 찾는 단골손님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 최근 스캐터북스에서는 단골인 아티스트가 반려동물물을 추모하는 핸드메이드 인형 전시를 열었다. 각자의 소중한 기억들이 책으로, 손글씨로, 전시로 다양하게 담겨, 작은 공간 안에서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스캐터북스. 팝업 전시는 처음 시도해 본다는 서점주의 말처럼 3일 남짓의 짧은 전시지만, 인디 아티스트의 갤러리가 되어 주기도 하는 등 공간 활용이 자유롭고 변화무쌍하다. 곳곳에 놓인 소품들이 조화를 이루어 감각 있는 아티스트의 방에 초대된 기분을 선사하는 곳으로 걸음을 멈추고 반드시 둘러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인생은 C와 사이의 B

취향을 선택하다, 로우북스

동교로와 포은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길 가가이에 자리한 로우북스는 '책&문구'라는 심플한 뜻말이 인상적인 서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곳'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책방에 들어서면 책을 직접 큐레이션 하여 판매하는 서점 주인이자 책방지기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경험'이 시작된다.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흥미로운 책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 에세이, 소설, 시 등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들이 눈길 닿는 곳마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계속해서 책장을 열어보게 한다.



책을 고르면 로우북스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가치가 적힌 책갈피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휴식 #Chillex, 사유 #Balance, 확장 #Inspire 등 선택의 과정 중에 지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게 된다. 귀여운 스탬프까지 선택하고 나면 구매한 책을 넣은 종이봉투에 스탬프가 찍히며, 내 취향으로 포장된 근사한 선물이 완성된다.

결국 단단한 일상이란 소소한 디테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로우북스에 둘러 여행길의 기념품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자.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공백

취미 생활의 시작, 제로헌드레드

로우북스에서 망원시장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로헌드레드를 만나게 된다. 작은 공방 겸 서점으로 책방의 이름은 '공백(空白, 0100)'. 매일 번아웃에 시달리는 도시 생활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여백을 만들어 주는 곳이다. '빈 곳'이라는 이름처럼 제로헌드레드는 동네 책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북토크, 밴드 공연, 작품 전시, 굿즈, 기록 모임, 공방, 창작 클럽 등 가까운 자리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 활동을 즐기는 커뮤니티로서 아티스트와 도시인들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고 있다. 오늘은 공연장으로, 내일은 전시장으로. 여행 일정 동안 '공백' 안에서 어떤 흥미 있는 활동이 연출될지 모르니 제로헌드레드의 공식 SNS에서 소식을 체크하고 방문해 보자.



당신을 위한 페이지

독립 출판의 성지, 가가77페이지

이제 숨은 보석 같은 골목을 벗어나 망원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전통 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활력에 차분했던 마음이 들썩이게 될 것이다. 망원시장은 힌한 망원동길의 중심지를 담당하며 MZ세대와 동네 주민들이 어우러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생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군중에 섞여 눈길을 사로잡는 먹거리를 구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망원시장이 끝나고 망원 올림픽 시장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나오는데, 이때 잠깐 옆으로 걸음을 돌리면 도로변 건물 지하 1층에서 가가77페이지를 만나게 된다.

다양한 도서 관련 행사 포스터를 따라 계단을 내려오면, 책에 파묻히기 위해 만들어진 애서가의 아지트처럼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책을 펼쳤을 때 단숨에 읽기 좋은 분량인 '77페이지'와 '거짓 가假'와 '집 가家'가 더해진 조어로 만들어진 이름만큼, 나만의 공간처럼 자리 잡고 앉아 책을 읽기 좋은 자리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





대기업 계열 광고 회사 서브 디렉터로 입사해 역대 연봉을 받던 서점 주의 이력만큼 가가77페이지는 다양한 독립 출판물이 출간되는 샘터이자, 공연·전시·북콘서트 등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감들이 샘솟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특별한 존재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나도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오늘'이라는 자신만의 페이지를 기록해 나가는 매일의 여행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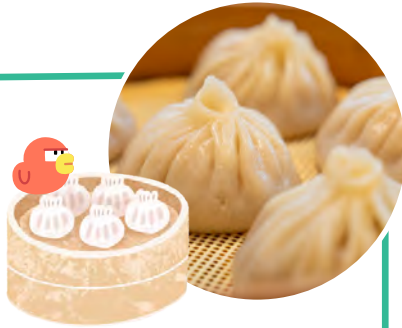
만두란 무엇인가

정통 샤오롱바오의 진수, 만두란

샤오롱바오는 상하이 지방의 만두로, 만두 중에서 가장 피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쫄깃한 만두피 안에 '육즙'으로 표현되는 수프가 가득 차 있어 스푼 위에 올려놓고 피를 찢어 육즙을 먼저 마시고, 알맞게 식은 만두를 한입에 먹는 특유의 식사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도 샤오롱바오 맛집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에서도 만두란은 작은 공간 안에 꼭 찬 내공을 가진 맛집으로 유명해 현재 2호점까지 확장되었다. 만두란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장님이 매일 정통 방식으로 직접 빚어내는 본토의 중국식 만두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80만 팔로워를 가진 대한민국 맛집 파워 채널 푸딩코에서 조명한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 메뉴는 육즙 샤오롱바오와 생생 표고 만두, 동파육과 칼칼한 속풀이 훈통탕, 땅콩 소스 베이스의 감칠맛 넘치는 량반미엔(비빔면)과 따뜻한 볶음면 등이다. 치솟는 물가 속에 1만원이 넘지 않는 메뉴가 많아 일행과 함께 가서 여러 가지를 시켜 먹는 재미가 있다.



내 취향이 조금 까다롭다면

진짜 좋은 커피에 대한 갈증 해소, 퀘치커피

생소한 이름의 퀘치커피(quench coffee)는 '갈증을 풀다'라는 뜻으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카페다. 길고 모던한 바 테이블이 좋은 커피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들에게서 키오스크가 점령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찾을 수 없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내리는 로스터리 카페 퀘치커피의 대표 메뉴는 마포아이스와 카푸치노다. 마포아이스는 일반적인 라테와 달리 버터 스킵치 소스에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간 시그니처 메뉴다. 달콤한 커피로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싶다면 기분 좋은 의외성에 미소가 지어지는 마포아이스를 꼭 마셔보자. 그리고 단단하고 쫄쫄한 원형의 밀크폼이 인상적인 카푸치노는 미감과 취향이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난 망원동 골목길 여행의 방점을 찍기에 알맞다.



08. 서대문구 천연동 골목길

오래된 주택가 사이 역사가 살아있는 길



멀리서 바라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문의 모습



여행코스 인근역 : 독립문역 도보5분

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② 독립문 → ③ 석교교회 → ④ 독립문영천시장

매일 새로운 건물이 올라오고 좋아하던 식당이 사라지기 바쁜 서울에서, 100년 이상 된 옛 건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새것을 좋아하지만 옛 것이 주는 가치는 분명 있다. 오랜 세월 공들여 보존해야 할 것이 영광의 기록만 일 수는 없기에, 교훈과 슬픔 또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바로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의 상흔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우리나라를 지킨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독립문을 통과해 서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옛 것과 새것, 망국과 번영,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어우러지는 천연동 골목길로 한국의 역사 여행을 떠나보자.

과거를 어루만지는 햇빛

태극기를 가슴에 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한국의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1908년부터 해방전까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들을 투옥하여 고문하던 감옥이다. 해방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름이 변경되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시국사범들이 수감되다가, 1992년 8월 15일 광복절에 지금의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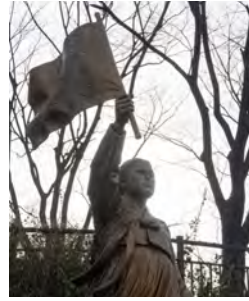
1900년대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은 아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연민을 자아낸다. 넓은 부지 안에서 전시 공간을 관람하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붉은 벽면 중앙에 펼쳐진 태극기다. 목숨을 담보로 한 고문과 위협 속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던 투사들의 정신이 오롯이 선명 해진다. 역사관 뒤편으로는 국립 대한국립시정부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좁고 컴컴한 감옥에서의 투쟁의 역사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모습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으니,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깃발을 높이 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나오면 독립문을 향해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만날 수 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3.1 운동의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던 유관순 열사는 모진 고문과 영양실조 끝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기개가 동상에 새겨진 굳은 표정과 꼭 쥔 주먹에서 여실히 느껴진다.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독립관을 지나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문 건립에 앞장선 서재필 선생의 동상이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민중계몽에 큰 역할을 한 독립신문으로, 신문을 높이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는 시선의 연결이 절묘하다. 서재필 선생은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애국지사들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성금을 모아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문은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에투알 개선문(Arc de triomphe de l'Étoile)의 모습을 본떠 만든 기념물이다. 청일 전쟁 이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독립의 의지를 높인 상징물로, 종속적 외교를 경계하여 되풀이하지 말자는 교훈이 담겨 있다.

100년의 믿음

민족의 안식처가 되어준, 석교 교회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명소 중 하나인 석교 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짓기보다는 1917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어진 교회 본당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높다란 종탑 주는 1950년에 중축되었다고 한다.

풍성한 목련 나무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석교 교회에는 70년이 넘는 토종 무궁화 나무와 50년이 넘는 고목도 보존되고 있다. 오랜 세월 민족의 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광복에 대한 희망을 키워온 석교 교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재도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여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한옥에서 즐기는 특별한 심 골목길 한옥 탐방,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100년의 시간을 거쳐 서울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고즈넉한 한옥,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일명 '서시그'는 잠시 서울의 시간이 멈춘 듯한 한옥 카페이자 독립 서점이다. 이곳은 오래 전 한옥에 사시던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작은 다락방과 뒷마루가 인상적인데, 무엇보다 한옥과 어울리는 따뜻한 조명이 도시의 복잡함에 지친 현대인에게 짙은 안식을 선사한다.



겉이 곧은 나무와 마당이 보이는 유리문 사이로 햇살을 즐기며 기다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쉽게 보기 힘든 다락방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으며, 날이 좋을 때는 뒷마루에 앉아 꽃 구경을 할 수도 있는 훌륭한 도심 속 쉼터이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한옥과 옛 건물이 많은 천연동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미래를 지키는 후손들

제로 웨이스트 브런치 카페, 야트막



선조들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지켰다면, 지금 후손들은 환경 운동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다. 비건, 제로 웨이스트, 오가닉, 지속가능성 등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은 한창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2030 젊은 세대들이다. 3.1 운동, 민주화 운동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듯이, 전 세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운동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를 보존했던 '석교 교회'를 지나고, 한옥 카페로 서울의 전통을 지키는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위 브런치 카페 '야트막'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작은 카페 야트막의 한 벽면을 차지하는 찬장에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양한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나 스테인리스, 천연 패브릭, 비건 음식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일상에서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

이곳은 환경에 유익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품질을 가진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를 만끽할 수 있는데, 야트막의 메인 디저트는 프렌치토스트로 고소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여행길 출출한 속을 달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떡 골목 재래시장, 독립문 영천시장



「방학이 다섯 손가락 안으로 임박하고 나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야시장으로 나갔다. 영천서부터 서대문 네거리까지 밤이면 야시장이었다.」 1992년에 발표된 작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 ‘동무 없는 아이’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책에는 작가의 유년 시절이 사실적인 필치로 생생히 그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시장이 바로 영천시장의 모태다.

떡이 맛있기로 유명해서 떡 골목에서 시작된 영천시장은 260m에 달하는 긴 골목길을 따라 시장이 이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오랜 세월에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이곳은 백 년 가계로 선정된 순댓국집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먹거리가 가득해, 계속해서 지갑을 열게 만든다. 최근에는 핫플레이스로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으니 여행길에 잠시 들러 주전부리를 사 먹어봐도 좋겠다.



꽃을 보며 술 한 잔

풍경을 빛는 양조장, 브루어리 304



영천시장길을 따라 큰 길로 나오면 우측에 숨은 골목이 나오는데, 그곳에 10년 가까이 장인 정신으로 수제 맥주를 빛는 양조장 브루어리 304가 자리 잡고 있다. 100년이 넘는 건축물부터 서울의 시간을 거슬러 온 끝에 만난 힙한 술집은 천연동에서 색다른 감성을 느끼게 하는데, 얼핏 보면 최근 유행하는 트렌디한 공간 같지만 천연동 브루어리 304에는 전통을 보존하고 지켜 나가는 후손들의 노력이 서려 있다. 이곳은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객이 머물던 여관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양조장과 탕룸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구조체의 잔재와 벽체의 거친 부분을 다듬고 투명 도료를 정성껏 도포해 옛 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의 재현을 이뤄냈다.

브루어리 304 입구에서 흐드러지게 핀 가로등 아래 목련나무를 포도 스폿으로 삼아 사진을 찍고 들어오면, 브루어리 내부의 거칠면서도 섬세한 인테리어를 감상하며 추천 맥주를 주문할 수 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도 좋지만 계단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면, 떡이 유명한 영천시장의 유래에서 착안한 만든 고사리오일떡볶이와 수제 맥주를 입장 전 봤던 목련을 배경으로 마시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오래된 속에서 새로움을 창조해 내는 천연동 사람들. 변화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는 한국의 젊은 세대야말로 천연동 골목에서 만나게 된 미래의 유산이 아닐까? 브루어리 304에서 전통이 주는 가치와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를 반추하며 옛 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던 천연동 골목길 여행을 마무리해 보자.

09. 서초구 양재천 카페거리

이국적인 정취에 반하는 푸른 공간



양재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시민



여행코스 인근역 : 양재시민의숲역 도보3분

①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② 매헌시민의숲 → ③ 서초문화예술공원 메타세쿼이아길 → ④ 양재천 카페거리

복잡한 도심에서 문득 흐르는 물을 보고 싶을 때 한강은 너무 넓고 호수는 멀리 있다면, 우리 곁에서 좋은 산책길이 되어주는 양재천으로 가보자. 양재천은 경기도 과천의 관악산에서 시작해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로질러 탄천으로 합류하는 한강의 제2지류다.

양재천은 벚꽃 시즌이 되면 장관을 이루는 풍경들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이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휴식을 주는 가깝고 친숙한 쉼터이다. 산책하기 좋은 도보길을 따라 분위기가 있고 창의적인 맛집과 이국적인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양재천. 혼자 와도, 둘이 와도, 혹은 여럿이 와도, 각각각색의 모습으로 즐기기에 좋은 이곳에서 느긋한 휴일의 정취를 만끽해 보자.



한겨울의 매화 향기

매헌의 유래, 윤봉길의사기념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나오면 숲길 초입에 있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곳이다. 매헌로의 도로명과 매헌시민의숲이라는 지명 모두 윤봉길 의사의 호인 매헌(梅軒)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한겨울 추위 속에서 향기를 내뿜는 매화의 고고한 기품과 총의 정신을 간직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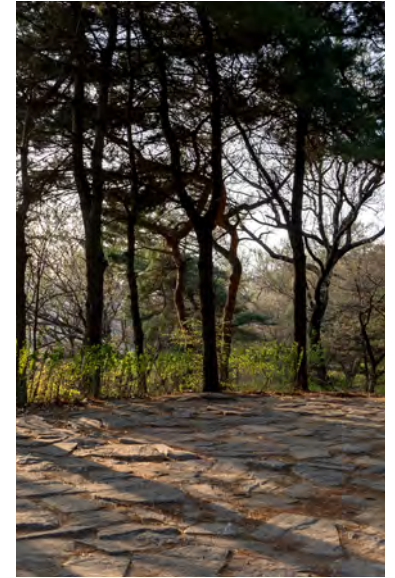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거행된 일본군 전승기념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며 한국의 투쟁 의지를 널리 알렸고, 국내의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을 바라보면, 천변을 따라 만발하는 벚꽃 사이 태극기가 나부끼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기념관을 돌아보며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고고한 기개를 발휘했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가슴에 새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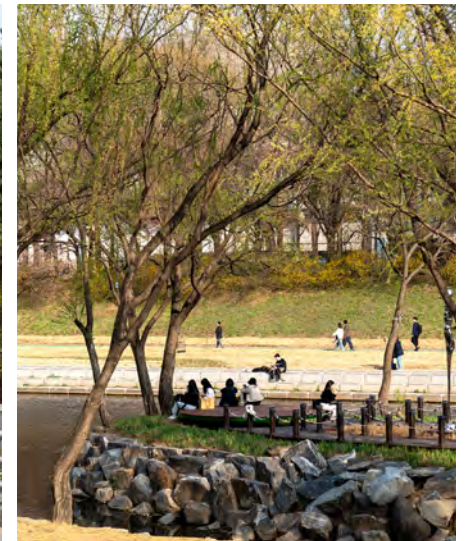
지은이:시민

한국 최초의 숲 공원, 매헌시민의숲

산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등산객들을 부르다면, 숲은 일상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을 부른다.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편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숲이 각광받기 훨씬 전부터, 국내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인 매헌시민의숲은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25만 주 이상의 수목이 울창한 매헌 시민의숲은 본래 1986년 완공되어 양재시민의숲으로 불리다가, 2022년 4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거쳐 '매헌시민의숲'으로 공원명이 변경되었다.



시민이 지은 이름을 가진 매헌시민의숲은 그 이름처럼 시민을 위한 자연 공간으로 가득하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적어 매헌시민의숲속에서는 탁 트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다. 공원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 추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은 커플 등 매헌시민의숲 안에서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은 식물 공동체인 숲의 모습과 닮아 있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는 모두의 숲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충전해 보자.



양재천 필승 포토존, 서초문화예술공원 메타세쿼이아길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는 1억년 전 백악기 공룡시대 화석에서도 발견되는 '살아있는 화석 나무'로, 1년에 1m씩 최대 높이 35m까지 빌딩처럼 높고 곧게 자라는 장엄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양 옆으로 빼곡히 심어진 나무는 그것 자체로 훌륭한 산책로이지만, 길 가운데 서서 카메라를 켜는 순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멋진 포토 스팟이 된다.

일명 '사색의 길'이라고 불리는 메타세쿼이아길을 찾기 위해선 매현시민의숲에서 서쪽으로 양재천을 따라 걸어가 서초문화예술공원 중심부로 들어가면 된다. 역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도 줄어들어 훨씬 더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잎이 없는 겨울의 호젓함도 멋이 있지만, 메타세쿼이아길은 푸르른 여름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가장 찬란하다. 양재동의 숨은 보석처럼, 사계절 아름답고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주는 메타세쿼이아길을 찾아가 상념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산책을 즐겨보자.



양재천의 소문난 맛집

정통 일본식 소바의 맛, 미우야



공원 산책을 마쳤다면 출출해진 배를 채울 때인데, 로컬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일본식 소바&우동 전문점 미우야에 가보자. 미우야는 2012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양재천의 소문난 맛집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2대째 성업 중인 '무라타 신슈소바'(信州そば むらた)에서 전수받은 맛을 오래도록 지켜 나가고 있다. 이곳은 주요 식재료를 일본 현지에서 공수하고 있으며, 매장 내에서 자가 제면이 가능하여 온도 높은 메밀면을 직접 뽑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웨이팅은 기본 30분 이상으로 예약 앱으로 대기를 걸어 둔 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양재천 카페거리의 초입을 둘러보고 오면 좋다.



많고 많은 일식당 사이에서 미우야가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과 다양한 메뉴 구성 덕분이다. 자가제면이 가능한 소바&우동 전문점답게, 차가운 면과 따뜻한 면을 냉온 메뉴로 분류하고 있어 다채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생크림과 명란으로 만든 퓨전소바인 멘다이크 크림소바로, 부드러운 크림 우동이나 까르보나라류를 좋아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돈카츠에 계란을 얹은 덮밥인 카츠동은 물론 단짠이 매력적인 일본식 달걀말이, 소바스시·김초밥·유부초밥이 포함된 스시3종 세트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이니, 익숙한 메뉴와 특별한 메뉴를 조합하여 새로운 믹스&매치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자.

햇살을 품은 그린 테이블

비건 브런치 레스토랑, 플랫 오



비건이 일부의 취향이 아닌 프리미엄 일상식이 되면 서 비건을 표방하는 창의적인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있다. 플랫 오는 세련된 도심 속 편안한 자연이 아름다운 양재천의 매력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자연주의 레스토랑이다. 조도가 낮은 내부는 바깥의 자연 풍경과 햇살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으며, 조화롭게 배치된 커다란 식물들로 마치 온실에 들어온 듯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플랫 오가 자신하는 메뉴는 옥수수가루 튀레와 구운 야채 플레이트의 플렌타, 폴리플라워를 바삭하게 튀겨 고소한 감자 맛이 나는 프라이드 컬리, 두부 리코타를 곁들인 토마토 가지 빠게리 파스타 등이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오픈 마인드의 레스토랑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플랫 오에서 생기 넘치는 자연을 눈과 입으로 즐겨 보자.



환상적인 디저트 판타지

플레이팅 디저트 코스, 앨리스프로젝트



코스 요리에는 스토리가 있다. 애피타이저(Appetizer)에서 시작해 메인 디시(Main dish)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디저트(Dessert)로 여운을 남기는 하나의 코스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처럼 셰프가 꿈꾸는 세계관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일종의 판타지 테마파크다. 만약 엔딩을 장식하는 디저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로 즐긴다면?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하는 곳이 바로 디저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앨리스프로젝트다.

이곳은 한국조리과학고를 나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 호주 시드니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키(Quay)'와 '베네롱(Bennelong)' 등에서 일하며 페이스트리 헤드 셰프까지 경력을 쌓은 셰프 앨리스의 프로젝트 공간으로, 4가지의 창의적인 디저트 메뉴와 음료를 함께 먹어볼 수 있는 디저트 코스가 시그니처다. 루콜라, 배, 고수, 당근, 펜넬

시드 등 디저트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식재료를 사용해 만든 음식에서 신세계를 맛볼 수 있다. 특정이 있다면 모두 새롭게 맛있다는 것. 디저트에 대한 열망과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면, 지금 앨리스 프로젝트에서 흥미로운 디저트 판타지에 꼭 빠져보자.



창의적인 요리를 좋아한다면

셰프들의 성지, 양재천 카페거리



요리는 입으로 즐기는 예술이다. 식재료의 조합과 요리법, 플레이팅 등을 통해 같은 메뉴도 천만 가지의 맛을 내어 창의적인 셰프들이 열정을 불태우는 분야이기도 하다. 양재천 카페거리는 그런 면에서 새롭고 감각적인 요리와 음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골목 여행 코스다. 무엇보다 양재천 카페거리의 분위기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를 가졌으면서도 거리를 찾는 사람들과 자연 풍경에 활짝 열린 개방성이 매력이다. 억지로 텐션을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곳을 찾고 있다면, 당신에게 양재천 카페거리가 안성맞춤이다.



10. 성북구 성북동 누들거리

골목 곳곳 살아있는 예술과 문화의 흔적



성북동 거리를 산책하는 시민



여행코스 인근역 : 한성대입구역 도보14분

① 성북동누들거리 → ② 방우산장 → ③ 최순우옛집 → ④ 길상사

성북동은 북한산과 남산을 품은 서울 구도심의 대표적인 주거 단지로 1970년대 이후에 재계 총수들이 성북동에 동지를 틀면서 부촌으로 이름을 알렸다. 길상사가 있는 언덕길로 올라갈수록 명성에 어울리는 고급 주택들이 나오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골목길을 형성한다.

한성대입구역에서 언덕길로 이어지는 평지에는 아기자기한 빌라촌이 있는데, 이곳에는 예부터 화가와 작가 등 문화 예술 인사들이 모여 살았다. 서울시는 이런 성북동만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2013년, 이곳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이룬난 노포와 문화 유적이 곳곳에 자리해 '누들거리'로 불리고 있는 성북동 코스. 성북동만의 맛과 멋을 찾아 분위기 있는 동네 나들이를 떠나보자.

평양냉면보다 맛있는 평양냉칼

평안남도 하단리(下端里)에서 온 손맛, 하단



고향을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향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평안남도 하단 출신의 어머니에게 손맛을 이어받은 사장님이 만드는 음식은 고향이 이북인 단골들에게 추억을 한 그릇 대접한다. 1993년부터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하단은 입맛이 까다로운 성북동 주민과 오래된 단골들에게 입소문이 나다가, 2000년대 초 냉국수 면을 메밀 칼국수로 바꾼 후 젊은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블루리본 서베이와 수요미식회에 등장하는 노포 맛집이 되었다.

평양냉면을 연상케 하는 메밀 냉 칼국수는 새콤한 백김치 국물에 양지 육수를 섞고, 청양고추를 킁으로 절묘한 맛을 내는 시원한 냉국수다. 사발을 두 손으로 들고 시원하게 들이키고 싶을 만큼 감칠맛이 뛰어난데도, 자극적이지 않아 끝까지 개운하다. 특히 통통한 칼국수 면이 부드러워 입에서 녹는다. 깊이 있는 두부 맛의 평양만두국과 녹두지짐도 필수 메뉴이니 성북동 맛집의 명성을 꼭 경험해 보자.



세월을 이겨낸 누들 노포

대를 잇는 거리, 성북동누들거리



이름난 면 요리 전문점이 많고 해서 성북구가 지정한 누들거리는 한성대입구역부터 메밀국수, 짜장면, 냉면, 쌀국수, 파스타 등 각 나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면 요리 전문점 27개가량이 수연산방까지 길을 따라 늘어서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 메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먹거리길의 단점이라 함은 '획일성'인데, 성북동 누들거리는 단 한곳도 비슷하지 않고 개성이 넘친다.



앞서 소개한 '하단'을 포함해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골 집이었다는 '국시집'과 성북동의 자랑으로 불리는 '손가네 곰국수', 술과 함께 즐기는 인기 국숫집 '구포국수' 등 자부심 강한 맛집들이 누들거리를 지키고 있다. 맛과 손님을 최우선으로, 오직 정성 하나로 긴 세월을 이겨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들거리에서 만나보자.



멸치 국수에 막걸리 한 잔

안주로 이름난 선술집, 성북동 구포국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일대는 조선 시대부터 곡물이 모이는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 제분·제면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6·25 전쟁으로 부산에 피난민이 모여들면서 구포국수가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의 명물이 된 구포국수는 일대에서 생산되는 국수의 총칭인데, 성북동 구포국수가 그 명맥의 한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기가 너무 좋아 누들거리에 줄지어 3호점까지 문을 연 성북동 구포국수는 국수와 파전, 수육, 삼합, 오징어튀김 등 술과 곁들여 먹기 좋은 메뉴들로 인기가 높다. 특히 구포국수 3호점은 야외 테라스가 있어 성북동 거리의 운치를 만끽하며 술 한 잔과 안주 한 점을 즐기기에 좋다. 푸짐한 양에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 맛은 한번 오면 계속 찾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남해 멸치와 완도 다시마로 진하게 끓여 낸 육수를 주전자에 담아 국수 그릇에 직접 부어주고, 생물 오징어를 바로 튀겨 부드럽고 쫄깃한 오징어튀김까지, 어떤 메뉴를 골라도 맛이 좋은 성북동 구포국수에서 즐거운 한때를 누려보자.

시인의 방, 방우산장

방우산장(放牛山莊)이라는 뜻은,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올라 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가 있는 자리라는 의미로, 성북동에 살았던 청록파 조지훈 시인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마음속에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직접 소를 키우지 않아도 소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

시인이 1953년 신천지에 기고한 '방우산장기'의 한 구절처럼,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깃든 곳이 모두 자신의 거처'라는 의미로 자신이 기거한 모든 곳을 '방우산장'으로 불렀다. 대로변에 놓인 방 모양의 조형물도 방우산장이 될 수 있는 연유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유를 하며 시인이 되어볼 수 있다. 직접 시를 쓰지 않아도 마음에 시를 품으면 시를 쓴 것과 다름없으니, 시인의 의자에 앉아 잠시 자유로운 생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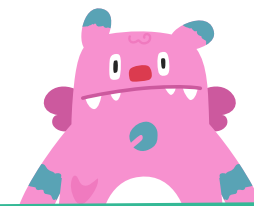


개다리소반 위 케이크 한 조각

할머니 댁 틈마루, 한옥카페 늘



고즈넉함이 좋아 한옥 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다. 세월이 느껴지는 나무결의 편안함이 여유가 없는 현대인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성북동 한 편에 자리한 한옥카페 '늘'은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찾는다. '늘'의 진짜 매력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더 극대화되는데, 대청마루에 소반을 두고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공간과 세련된 원목 가구로 꾸민 공간이 어우러져 진정한 뉴트로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크 맛집으로도 이름난 한옥카페 '늘'은 흑임자 가또와 늘 슈페너가 인기 메뉴다. 소반 앞에 방석을 깔고 앉아 두런두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늘'에서 달달한 케이크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찾아뵈는 것 같은 아늑함을 만끽해 보자.



시민이 지킨 유산

박물관장의 집, 최순우 옛집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가 한국의 미를 일깨우는 최고의 안내서로 손꼽는 책이 바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이다. 이 책의 저자 최순우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 제4대 관장이자 미술사 학자로 평생 박물관인으로 살며 한국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최순우 옛집’으로 문화유산이 된 가옥은 1930년대 근대 한옥을 선생의 안목으로 꾸민 곳으로, 구석구석이 미술관이자 박물관인 시민문화유산 1호다.



최순우 옛집에는 툇마루에 앉아 온전한 쉼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순우 선생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색에 잠기던 사랑방을 한옥에 재현하고, 정갈한 목가구와 민예품들로 전통 공예 미술관처럼 집을 꾸몄다. 옛집에 들어서면 중정을 장식하는 커다란 소나무와 산사나무 등이 집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만들어준다.

누구나 환대 받는 나그네가 되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갈 수 있는 집. 돈을 내고 카페에서 쉬는 문화가 만들어진 현대 도시에서 최순우 옛집의 넉넉함은 모든 나그네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옛사람들의 너그러움을 그럽게 한다.



진정한 무소유 (無所有)

길(吉)하고 상(祥)서롭다, 길상사



1970~80년대는 ‘요정’ 정치의 시대였다. 군사독재 시절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재벌들은 고급 요정에서 비밀 회동을 하며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대원각, 삼청각, 청운각 등 ‘복악산 3각’으로 불린 특급 요정들은 정부의 회담장, 만찬장 등으로도 쓰이며 재력을 끌어모았는데, 그중 하나인 대원각이 길상사의 전신이다.

길상사의 본전인 극락전(極樂殿)에 들어서자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연등이 장관을 이룬다. 길상사는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 대신 아미타 부처를 모신 극락전이 본전이다. 불우한 시대의 인재들과 고급 요리집에서 소모된 동물들이 극락 왕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극락전을 주전으로 세웠다고 한다.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김영한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깨달음을 얻어 당시 돈으로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7,000여 평의 대원각 부지와 40개 동 건물을 시주했다. 법정 스님은 10년간 김영한의 간청을 거절했으나, 결국 뜻을 받아들여 1995년 조계종 송광사 말사인 ‘대법사’로 등록하여 사찰이 되었고, 1997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의 ‘길상사’가 되었다.

도심 속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청정한 자연 속에 고요하게 자리한 길상사를 걸으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1,000억의 돈도 사랑하는 이의 글 한 줄에는 못하다는 김영한의 말처럼, 성북동에는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성북동에서 꽃피울 수 있었을 것이다.

11. 종로구 창덕궁길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사색이 필요할 때



창덕궁길을 산책하는 시민과 돌담 너머로 보이는 창덕궁



여행코스 인근역 : 안국역 도보3분

①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 ② 창덕궁 돈화문 → ③ 인사미술공간 → ④ 고희동 미술관

창덕궁은 500년이 넘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임금이 오랫동안 거처한 궁궐이다. 철저한 예법에 따라 평지에 지어진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궁궐 건축의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건축미를 이뤘다. 창덕궁은 수려한 산세와 우아한 조경을 자랑하는데, 풍수기들은 창덕궁을 최고의 명당이라 예찬하기도 한다.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 평가받는 창덕궁은 위압감보다는 편안함으로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다. 매일 확실적인 도시 건물만 보고 사는 현대인에게 창덕궁길은 고전 건축의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태종 12년에 지어진 정문인 돈화문에서 시작하는 고즈넉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 하나하나에 서려 있는 유구한 역사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궁궐은 관광객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 창덕궁길에서 고전 건축과 미술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미로에서 즐기는 현대 미술

천재 건축가의 공간,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30세의 나이에 건축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데뷔한 1세대 건축가故 김수근. 그가 세운 자유센터, 타워호텔, 세운상가, 경동교회 등에는 1960~1980년대의 시대상과 함께 그의 건축 철학이 담겨 있다. 김수근 건축가는 자신의 정신적 바탕을 한국 전통 건축에 두고, 우리의 건축이 자연에 가장 가깝고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창덕궁과 주변 한옥과의 조화를 위해 기왓장 느낌의 검은 벽돌(전돌)을 사용해 공간사육을 지었다. 이 (구)공간사육을 전시장으로 탈바꿈 시킨 것이 바로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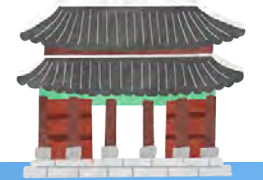
입구에는 한옥 카페 '프린츠 원서점'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레트로 디자인으로 커피 산업계에 한 획을 그은 프린츠와 한옥의 만남이 멋스럽다. 김수근 건축가가 구입해 온 고려 시대 석탑을 지나, 공간사육의 시그니처인 검은 벽돌을 따라가면 티켓 예매처가 있고 거기서부터 아라리오 콜렉션을 탐험하는 미로가 시작된다.

공간사육은 본래 김수근 건축가의 자택이었다. 좁은 땅에서 최대한의 공간 효율을 내기 위해 바닥을 반 층씩 어긋난 높이로 설계하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스킵플로어 방식을 적용했다. 방에서 방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이 나오고, 계단과 천장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 보물 찾기처럼 나타나는 콜렉션 작품들을 감상하며 구불구불한 한국의 골목길에서 영감을 받아 차용했다는 공간사육의 실내를 충분히 즐기고 나오자.



한복 입고 나들이 갈까

한복 스냅 명소, 창덕궁 돈화문



'돈화(敦化)'는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는 뜻이다. 창덕궁의 첫 번째 관문인 돈화문은 1412년(태종12년)에 창건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9년(광해군1년)에 창덕궁이 복원되면서 돈화문도 함께 복구되었다.

현존하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알려진 창덕궁 돈화문은 조선 시대 궁궐 건축의 역사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인근에는 한복 대여 전문점들도 위치해 있어, 한복을 대여한 뒤 본격적인 창덕궁길 여행을 시작하기 전 기념샷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다.



달인의 손맛

천하에 소문난 보쌈집, 천하보쌈



색색이 고운 돌담길 너머 창덕궁 선정전이 보이는 삼거리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하보쌈이 나온다. 이곳은 생활의 달인 654회 보쌈 달인 편에 출연한 지복순 달인이 운영하는 보쌈집으로, 맛집 보증수표로 불리는 먹방 유튜브 버쌈씨가 방문해 이름을 높였다. 하지만, 굳이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창덕궁 보쌈 맛집으로 불렸던 천하보쌈의 맛의 비결은 '조화와 비율'에 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한상은 고기와 김치 맛으로 승부를 보는 고수의 정공법으로 느껴진다. 살코기와 비계가 최적의 밸런스로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자아내며, 잡내를 감추기 위한 진한 약재 향도 없이 갓 삶은 순한 육향의 고기는 담백하게 넘어간다. 가장 중요한 김치는 지나친 자극 없이 깔끔하게 그지없는데도 감칠맛과 시원함을 더해준다. 과한 시즈닝과 콜라보로 자극에 자극을 더해가는 요즘 외식 산업에서 정석의 맛으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천하보쌈의 독심이 인상적이다.



세상을 바꾸는 예술 아티스트리를 지향하는 '인미공'은 고즈넉한 한옥과 빌라들 사이에서 따뜻한 색감의 벽돌 건물로 우뚝 솟은 20년이 넘는 건물로서,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창덕궁길에서 20대 청춘같이 찬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지금 가장 생생한 현대 미술이 보고 싶다면 '인미공'에서 젊은 미술가들의 열정을 경험해 보자.



당신의 사전에 이런 커피는 없었다

스페셜 톳마루 커피, txt커피

햇빛과 비를 가려주는 처마 밑 톳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명한 소리를 내는 한옥의 정경. 한옥이 가진 여유와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재현한 txt 커피는 실력 있는 커피 전문점이 즐비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커피 맛을 자랑해, 커피 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이다.



작은 카페 공간의 매력은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자신의 취향을 적어내는 특별한 주문서 방식과 창호문 같은 선반에서 극대화된다. 앉을 곳이 톳마루밖에 없어서 오히려 좋은 카페. 커피를 주문하고 한 잔 마시는 시간 동안, 톳마루에 앉아 창덕궁길의 예스러운 풍경에 녹아들다 보면 지루할 틈 없이 그저 한가롭고 행복하기만 하다.

원두에 대한 전문 지식과 테크닉을 바탕으로 정제된 서비스로 제공되는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창덕궁길의 한 가운데 txt 커피의 톳마루에 앉아보자.



Forever Young

실험적 젊은 미술의 산실, 인사미술공간

고궁 돌담을 따라 한적하게 길을 걷다 보면 인사미술공간(이하 '인미공')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한국예술문화위원회가 시각예술 분야 신진예술인 전문 지원 공간으로 2000년에 개관해, 현재는 아크미술관에서 젊은 미술가의 창작 환경과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시각예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교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살고 싶은 한옥 집

서양과 동양의 만남,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관

txt 커피와 길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멋스러운 한옥이 있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춘경 고희동의 가옥이다. 등록문화재 제84호 종로구립 고희동 미술관은, 고희동 화백이 일본 유학 후 돌아와 직접 설계하고 41년간 거주한 근대식 한옥으로 복원공사를 거쳐 2012년 11월에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너른 마당과 격조 있는 기와지붕, 작은 표지판이 있는 우측으로 들어가면 관리인이 객을 맞는다. 안으로 들어가면 영화 '아가씨'에서 봤을 법한 근대 가옥의 좁은 복도를 따라 채와 채 사이를 넘나드는데, 창밖에 소박한 중정이 있어 답답하지 않다.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은 전통과 근대의 속성을 고루 갖춘 통섭(統攝)의 예술로 근대미술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그의 가옥 또한 한옥의 멋과 일본 가옥의 미를 절충하여 통합한 새 시대의 건축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



서울의 원도심으로 궁궐과 문화재가 밀집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종로구. 창덕궁길은 인사동, 삼청동, 북촌 등 전통의 관광지부터 새롭게 떠오른 익선동, 서순라길에서도 조금 빗겨 나 있어 아직은 한적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오래된 주택과 한옥들 사이의 멋스러운 길을 걸으며 숨어있는 카페와 소박한 로컬 맛집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사색이 필요하다면 아름다운 길을 따라 예술과 사유에 빠질 수 있는 창덕궁길로 향해보자.

정겹게, 단순하게 식객이 인정한 백반, 밀과보리

칼국수와 보리밥을 팔기 시작해, 정겹고 단순하게 붙인 이름 '밀과보리'는 식객 허영만이 인정한 건강한 백반집이다. 메인 메뉴인 바지락 칼국수는 토종 얇은뱅이 밀을 섞어 소화가 잘 된다. 평창에 있는 친구가 직접 재배하고 말린 곤드레를 넣어 속이 편한 음식이라는 평가를 듣는 덕에 매일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손님들은 밀과보리에 방문해 계절을 맞본다. 봄철에는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썩 전, 아삭하고 향긋한 미나리 전 등 땅의 에너지를 품고 나온 신선한 나물을 베어 문다. 갓 지은 곤드레 밥과 봄나물을 먹는 정겨운 집. 이곳엔 질박한 정성이 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와 현대를 거슬러 온 방랑 식객이라면 계동에서 30년 이상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 밀과 보리의 생명력과 겨울 땅을 뚫고 나온 봄나물의 기운을 만끽해 보자.



12. 중구 중림동 골목길

서울의 과거와 트렌디한 핫플의 공존



만리재길에 위치한 MANRI199의 외관



여행코스 인근역 : 충정로역 도보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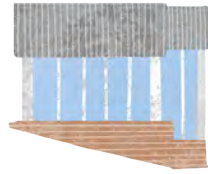
① 중림창고 → ② 약현성당 → ③ 염천교수제화거리 → ④ 서울로7017 → ⑤ 만리재길

누군가에게 서울역은 기차역이다. 목적지로 떠나거나 때로는 목적지가 되는 곳. 대한민국 철도의 심장이라는 말처럼 서울역은 펌프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고, 밖으로 뿜어낸다. 하지만, 서울역 뒤 중림동에는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트처럼 삶의 궤적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

120년이 넘는 서울역의 역사와 함께,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는 중림동의 골목길. 존재 자체로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 공간과 시간의 가치를 아는 젊은 사업가들이 새로운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 지금 우리가 중림동 골목길에 가야 하는 이유다.

함께 쓰는 페이지

149번지 사람들의 꿈, 중림창고



50년이 넘는 아파트와 건축상을 받은 현대식 건물이 마주 보고 있는 골목길. 이 길은 중림동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들의 꿈이 모인 길이다. 현대식 건물은 '중림창고'로, 본래는 1980~1990년대 수산시장으로 번창했던 옛 중림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보관하던 무허가 건물이었다. 서울시가 창고를 사들여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어반스페이스오디세이(Urban Space Odyssey)'와 함께 '서울로7017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앵커시설로 리뉴얼 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전시공간으로 신축된 복합문화공간인 중림창고는 2021년, 골목책방 (여기 서울 149쪽)을 개관했다.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성요셉아파트의 주민과 상인 공동체인 '149번지 이웃들'이 직접 운영하는



커뮤니티 책방으로, 책과 골목책방을 매개로 지역 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길 기대하고 있다. 도시 재생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한 장 한 장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사의 페이지. 성요셉문화거리를 시작으로 서울역의 과거와 새로운 바람을 짊어 나가보자.



도시인을 끌어당기다

길목을 여는 카페, 드로우에스프레소바



중림창고가 있는 성요셉문화거리로 들어가는 길목, 동네의 풍경을 바꾸는 카페가 있다. 드로우에스프레소바는 옛 건물에 새겨진 시간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간에 시티 라이프의 감수성을 채워 넣었다. 'Daily Routine for All Workers'. 이곳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빌딩 숲에 불기 시작한 에스프레소 바의 유행과 궤를 같이 하며, 바쁜 도시인들에게 깊이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길 짧은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올리고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는 카페 피에노(Caffe Pieno)와 인근 떡 방앗간에서 직접 받아오는 백설기다. 오랜 된 골목에 감성적인 도시인들과 새로운 활력을 끌어들이는 드로우에스프레소바에서, 숨 가쁘게 바쁘다 가도 골목에서만큼은 느리게 가는 시간의 흔적을 포착해 보자.



벽돌에 새겨진 믿음

언덕 위의 벽돌 성당, 약현성당



조선 후기에 행해졌던 천주교 박해가 끝나고 1892년,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약현성당이 세워졌다. 약현(藥峴)은 '약초밭이 많은 고개'라는 뜻으로, 중림동의 옛 지명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 고딕 성당인 약현성당은 1998년 화재로 훼손된 건물을 복원한 것이지만,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약초처럼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아픈 시간들을 견뎌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왔다.



명동성당보다 앞서 지어지며 대한민국 1호 성당이 된 약현성당은 명동성당을 지은 코스트(고익선) 신부가 설계하고, 김성흥 신부가 터를 매입하여, 한옥 기와를 굽는 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지은 곳이다.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상'이 같이 있는 성당으로 인해 '성요셉아파트'가 이름 지어졌다. 중림동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서울로를 지키고 있는 약현성당에서 고딕 성당이 주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가보자.

멋쟁이 신사들의 구두

장인의 거리, 염천교수제화거리

염천교는 조선 시대에 화약을 제조하던 관아인 '염초청' 근처에 있는 다리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염천교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의 유행과 패션을 선도했다. 1925년 서울역 인근에 피혁창고가 생기고 염천교의 구두가 유명해지면서 구두 장인들이 모여들었



고, 경성의 모던보이들부터 수제화를 사랑하는 패셔니스타들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염천교수제화거리를 찾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서울의 성장 속에 대한민국 근·현대 패션의 역사를 간직한 염천교수제화거리는, 현재 관광 명소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서울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황금기가 지났음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수제화 기술의 명맥을 이으려는 장인들의 자부심이다.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모던보이들이 신발을 맞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염천교수제화거리에 들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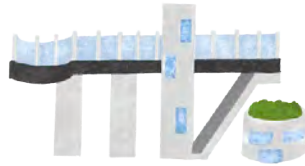


70년과 17년의 연결

서울을 걷다, 서울로7017

길을 내는 것은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로 7017은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를 사람이 걷는 보행길로 바꾸고, 시간의 멈춘 17개의 사람길에 생명을 불어넣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다.

1970년에 개통해 서울역을 중심으로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를 이어 온 고가도로는 반세기 가까이 서울의 상징물이 되었다. 2015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고 철거 위기에 놓였지만, 철거 대신 도시재생에 무게가 실리면서 1년 이상의 공사 기간을 거쳐 걷기길로 변신했다. 염천교수제화거리와 서소문역사공원 인근에서 시작해, 서울역을 거쳐 서울스퀘어까지 이어지는 1km 길이의 길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식물과 휴식 공간이 있다.



17m 높이의 고가도로와, 17개의 사람길, 17년에 재탄생했다는 다양한 뜻을 가진 서울로7017은 3가지 코스의 골목길 여행을 제안한다. 서울역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역 서울284'에서 서울로7017과 송례문을 거쳐 남산육교로 가는 1코스, 손기정 기념관과 약현성당 등 성요셉문화거리를 통해 충정로역까지 나가는 2코스, 남대문교회와 한양도성을 지나가는 3코스가 있다. 오래된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와 걷기의 즐거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서울로7017에서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자.

사이시웃으로 만나다

지금 가장 힙한 사잇길, 만리재길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Avenue des Champs-Élysées)는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 사이에 자리해 100년이 넘는 역사적 건축물과 고급 레스토랑, 부티크 상점, 푸른 자연이 아름다운 공원 등을 3km 내외의 거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다. 서울역 뒤편에서 역사성과 볼거리, 먹거리로 가득한 만리재길 또한 서울의 샹젤리제라 불리며 관광객과 힙스터들이 찾는 인기 거리다.

서울시는 일찍이 만리단길로 불리던 만리재로와 서울로7017을 잇는 구간을 사이시웃으로 만난다는 의미를 담아 '서울로사잇길'로 가졌다. 좋은 길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든다. 길을 내고 이으며 달라지는 거리. 서울로사잇길의 밝은 미래를 맛집이 즐비한 거리에서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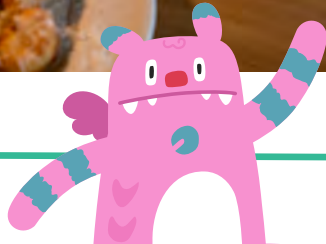
종종 오세요 (kom vaak)

햇살을 맞는 브런치, 콤바크



네덜란드어로 '종종 오세요'라는 의미를 가진 콤바크는 부담 없이 편하게 서울로를 걷다가 들릴 수 있는 양식 레스토랑이다. 서울역 파스타 맛집으로도 소개되는 콤바크는 낮에는 커피와 브런치를, 밤에는 분위기 있는 디너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인기 메뉴는 브런치 메뉴인 콤바크 플래터와 에그 베네딕트, 버섯 튀셀과 트러플이 어우러지는 트러플 감자뇨끼, 향긋한 새우 레몬 허브 파스타 등이다. 테이블마다 놓인 아늑한 조명 빛을 받는 요리들은 더욱 먹음직스럽게 연출된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만리재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콤바크에 방문해, 맛있는 브런치를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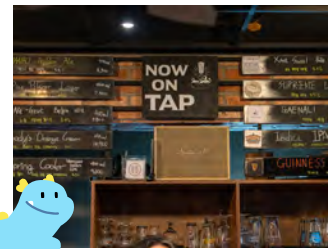
'피맥' 꿀조합

수제맥주를 한자리에, MANRI199

'치맥'이라는 말로 치킨의 짝궁으로 인식되던 맥주가, 수제 맥주의 열풍을 타고 탭룸(Taproom)에서 피자를 먹으며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다. 탭룸은 술집이나 양조장의 술통에서 직접 알코올음료를 제공하는 방이라는 뜻으로, MANRI199에서는 전국의 브루어리에서 탄생하는 창의적인 수제 맥주를 한 자리에서 마셔볼 수 있다.



몰트가 들어간 다양한 모양의 탭 핸들을 구경하며, 마스터가 소개하는 맥주를 선택하면 노련한 손놀림으로 따라낸 신선한 생맥주가 서브된다. MANRI199에서 추천하는 맥주는 소셜드링커스의 만리 골든 에일과 아슈트리 브루어리의 수프림 라거다. 만리 골든 에일은 구아버와 망고, 패션 프룻의 상큼함이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수프림 라거는 프리미엄 라거로 섬세한 맛을 자랑한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직접 절구에 빻아 신선하게 먹는 과카몰리와 두툼한 디트로이트 스타일의 페퍼로니 피자도 탭룸에서 맥주를 즐기는 시간을 더욱 흥겹게 만든다.



자리가 없을 만큼 짝 차 떠들썩한 펍의 분위기와 야외로 활짝 열린 노천 테라스에서의 한 잔을 사랑한다면 지금 만리재길로 향해야 한다.



13. 중랑구 중랑천 제방길

사계절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중랑천 길을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시민



여행코스 인근역 : 중랑역 도보10분

① 중랑교 → ② 중화체육공원 → ③ 중랑잠미공원 → ④ 월릉교

중랑구는 서울의 북동쪽에 자리한 자치구로 경기도 구리시, 동대문구, 노원구, 광진구에 인접하고 있어 거주민이 많은 주택 지역이다. 중랑구를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하천으로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며, 생태 환경이 좋아 다양한 철새와 초목을 관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한때, 오염수의 유입으로 자연환경이 악화되었던 중랑천은 1980년부터 이어진 국가적, 범시민적 복원 운동으로 현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봄여름의 유채꽃과 장미터널, 가을의 억새와 갈대, 겨울의 철새들의 모습까지 사계절 모두 찾고 싶은 중랑천 제방길을 산책하며, 살고 싶은 동네 중랑구를 천천히 관찰해 보자.

자전거로 달려볼까?

Ready, Get Set, Go! 중랑교



중랑천 나들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작하여 성수동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기에 무척 길다. 어디서든 중랑천을 만끽할 수 있지만, 추천 코스는 중랑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중랑교에서 장미공원을 지나 태릉입구역까지 가는 직선 코스는 약 3.5km 남짓으로 1시간~1시간 반 정도 부담 없이 걷기에 좋다. 실제로 중랑천은 산책뿐만 아니라 라이딩 명소로 많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중랑교를 통해 중랑천으로 진입한다.

중랑교는 조선시대 왕들이 왕릉 행차 시에 목교를 임시로 가설했던 자리를 1934년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로 다리로 놓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 방면으로 나가는 교통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랑교. 중랑천 제방길 여행의 관문이 되어줄 중랑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중랑천으로 들어가자.



중랑교 근처에서 국밥 한 그릇 찾아오는 로컬푸드, 키미노돼지국밥



키미노돼지국밥집의 사장님 이름은 '김민호'씨다.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은 맛있다'라는 속설처럼, 아산총각이 끓여주는 돼지국밥은 구수하고 깊은 맛으로 중랑동부시장의 맛집이 되었다. 키미노돼지국밥은 한적한 주택가 한 편에 자리하고 있지만, 유리문이 쉴 새 없이 열린다. 특히 젊은 20~30대의 방문이 잦는데, 잡내 없는 깔끔함과 저렴한 가격이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는 동네 주민들과 빠르게 한 그릇 후루룩 들이 키고 라이딩을 떠나야 하는 라이더들에게 적합하다.



키미노돼지국밥은 꾸밈없이 투명한 매장이다. 로스터리 카페의 랍실처럼 통유리로 훤히 다 보이는 대형 들통에서 순수 국내산 돈 사골을 직접 우려내고 있다. 로스팅 된 원두처럼 일자가 빼곡히 적힌 깎두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직접 반찬을 떠가는 손님에게 선보여 신뢰를 얻는다. 담백하고 잘 익은 고기가 듬뿍 든 돼지국밥과 철판에 지글지글 익어 나오는 맛보기 순대.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 걸고 하는 맛집에서 천안·아산식 지역 음식을 경험해 보자.



모두를 위한 배려

명랑체육장, 중화체육공원

중랑천에는 길을 따라 건강한 에너지가 살아 숨 쉰다. 곳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다.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잘 만들어져 구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든다.

농구 코트에서 땀을 흘리는 청소년들,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까지. 중화체육공원에는 라이딩 코스로 유명한 자전거길과 천변을 따라 반려견과 운동하는 견주들을 위한 반려인 쉼터도 있으며, 파크 골프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중랑천 제방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취향들을 포용하고 있는 중랑천의 매력을 만나게 된다. 살기 좋은 동네 란 결국, 이런 차이와 취향의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5월의 여왕과 함께

가장 긴 장미터널, 중랑장미공원

장미의 대표적인 꽃말은 사랑과 낭만이다. 장미 꽃다발은 연인에게 선물하는 커다란 애정의 증표가 될 정도로 장미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중랑장미공원은 2005년 주민들의 제안으로 장미터널이 조성되었다. 중랑천 장평교에서 월릉교까지 최장 5.45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미 터널이며, 서울 장미 축제 시즌이 되면 200 품종이 넘는 천만 송이 장미들을 중랑천을 따라 산책과 운동을 즐기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서울을 대표하는 장미 명소가 되었다.



찬란하게 피어난 장미터널을 걷는 기분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황홀함이다. 장미 덩굴의 색과 향에 취하다 보면, 어느덧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장미가 만개하는 5월이 되면, 중랑천을 따라 장미꽃 터널 곳곳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보자.

중랑천은 계속된다

중랑천 정거장, 월릉교



잘 정돈된 중랑천 제방길을 걷다 보면 월릉교에 다다른다. 월릉교는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중랑천의 교량으로 월릉교를 기점으로 지역구가 바뀌게 된다. 이곳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의 경계가 모여 있는 삼합점이다.

중랑천은 계속되지만, 6,7호선 태릉입구역과 중랑장미공원이 붙어 있는 월릉교는 중랑교에서 시작한 중랑천 산책코스를 일단락하기 좋은 장소다. 월릉교 밑에서 중랑장미공원 중심부로 들어가도 좋고, 월릉교 위로 올라 태릉입구역으로 향해도 좋다. 어디서든 세계적 탁 트인 뷰로 여행의 여운을 남겨줄 것이다.



전국에서 직접 공수한

편집숍 무드 카페, 너브커피



수줍음 많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너브커피는 운영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로컬 카페다. 6~7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을 둔 작은 카페이지만 주인의 안목은 훌륭하다. 이곳은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직접 공수해 와 마치 일종의 편집숍처럼 운영된다.

전국 밀크티 열풍의 주역인 카페 진정성에서 직접 받는 바닐라빈 라테, 로우키의 에티오피아 부쿠아벨 내추럴,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허브티,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의 수제 맥주 등 맛있게 소소한 마실 거리를 다양하게 제안한다. 마치 감각 좋은 친구에게 요즘 가장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추천받는 느낌.

태릉입구역에서 5분 거리, 공릉초등학교 앞 너브커피에 방문했을 때 문이 열려 있다면, "lucky!"를 외치며 마시고 싶은 메뉴를 주문해 보자. 너브커피는 어떤 선택을 하든 업선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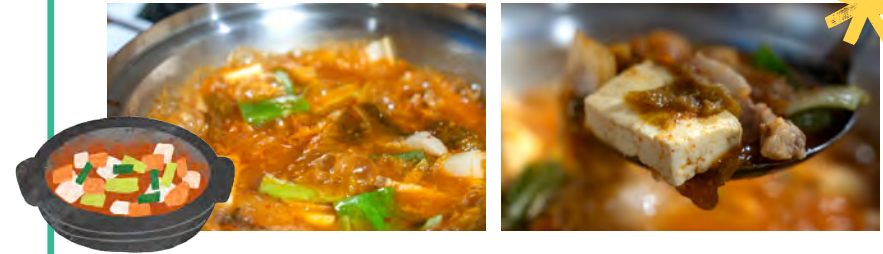


언제 먹어도 늘 그리운

한국인의 서울푸드, 임현숙의 이화김치찌개



쌀밥에 김치찌개를 먹어보지 않고 자란 한국인은 없다고 할 정도로 김치찌개에는 집밥의 정서가 담겨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늘 그리운 김치찌개는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각자 선호하는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잡기가 어려운 메뉴기도 하다. 너무 시거나 너무 강해서 안 되고 너무 밍밍해서 안 되는 그 어느 적정선의 포인트를 임현숙의 이화김치찌개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남녀노소, 밤낮 가릴 것 없이 이곳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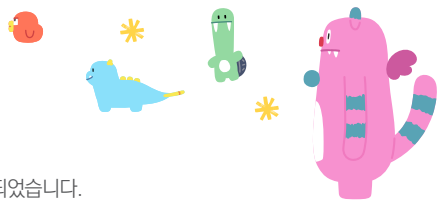


평범해 보이는 김치찌개와 김, 젓갈 맛을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었던 수오미식회에서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김치찌개의 교집합을 맛으로 재현하며,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김치는 매주 새로 100포기씩 담가 한두 달 숙성한 뒤 찌개 재료로 내놓으며, 젓갈은 속초에서 공수해 온 오징어젓갈을 다시 양념해 식탁에 올린다. 고기는 푹 끓여서 입에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다. 김도 선경김을 쓰는데 이 모든 조화가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 말 그대로 김치찌개의 클래식. 중랑천 제방길 여행의 엔딩을 장식하기에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



중랑천은 한강의 새끼 강이라 해서 '셋강'으로 불렸다. 한강이 동과 서로 흐르며 각 지역 주민과 관광객까지 함께 하는 곳이라면, 중랑천은 남과 북으로 경기도와 서울 중심부까지 흐르며 집에서 운동을 하러 나오는 지역민들이 체육과 휴식을 즐기는 쉼터가 되고 있다. 로컬푸드에서 시작해 서울푸드로 마무리하는 중랑천 제방길 여행. 이곳에서 우리의 일상에 흐르는 따뜻한 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자.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본 콘텐츠의 내용은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로구 카페 txt커피 실내에 걸려있는 풍경

